



서울대학교 동창회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포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제 227 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7년 2월 15일

[1]



사진설명 ①대전·충남지부 제27차 정기이사회 및 신년 교례회 ②인도네시아지부 송년모임 ③약대동창회 신년 교례회 ④상대동창회 회장단 회의결 운영위원회 ⑤불어불문학과동창회 창립총회 ⑥간호대동창회 신년 하례회.

각 동창회 신년 다짐 풍성

“서울대인의 슬기로운 지성이 필요할 때다”

관상추추

우리나라도 금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정하고 있지만,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문화선도의 시대」에 접어든 느낌이다. 제18회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는 무주에서도 24일의 개막에 앞서 21일부터 「눈(雪)그림 6백년- 꿈과 기다림의 餘白」전이 열리고 있다.

그 가운데서 秋史 金正喜의 「歲寒圖」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2월 8일이 설날이다. 바로 이 歲寒의 철에 맞추어 선보이는 「세한도」야말로 時空 공히 제 격이 아닐 수 없다. 긴 설명

이 필요없이 1844년 秋史가 유배지 제주에서 그렸다는 이 수묵화는 그 구도나 내용에 있어서 선비의 文氣가 넘쳐 흐르는 조선조 문인화의 백미라 할만하다. 담백한 필치와 넉넉한 여백은 전시회의 副題가

歲寒의 덕담

말하는 「꿈과 기다림」을 담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여유롭다. 뿐만 아니라 그 畫題가 말하는 깊은 뜻은 금상첨화인 셈이다.

논어에 나오는 「歲寒然後知松柏後彫(凋)也」(추운 설

날 날씨가 당해 봐야 소나무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가 출전이란다. 다시 말하면 亂世에 節士를 알게 된다는 뜻이다. 학창시절에 어떤 영어선생님이 영문 격언의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힘주어 가르쳐 주시던 추억이 떠올라 더욱 감회롭다.

아무튼 유별나게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도 겹치고 시끄러운 요즈음의 세태여서 松柏의 절조가 아쉽기만 하다. 옛부터 설날에는 고운말과 덕담을 주고 받는 것을 美俗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다. 辛度가 좀 지나칠지 모르겠으나 득이 되는 덕담으로 반추해 보면 싶다. (根)

본보 상임 논설위원에 李炯均·金仁圭동문 위촉

본회는 지난 1월 10일 프레스센터에서 鄭宗澤상임부회장(본보 편집인)을 비롯한 논설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회보 신년호에 대한 평가와 2월호 준비를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회보제작에 기여해온 李炯均프레스센터 전문이사를 상임논설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朴應七상임논설위원(前



李炯均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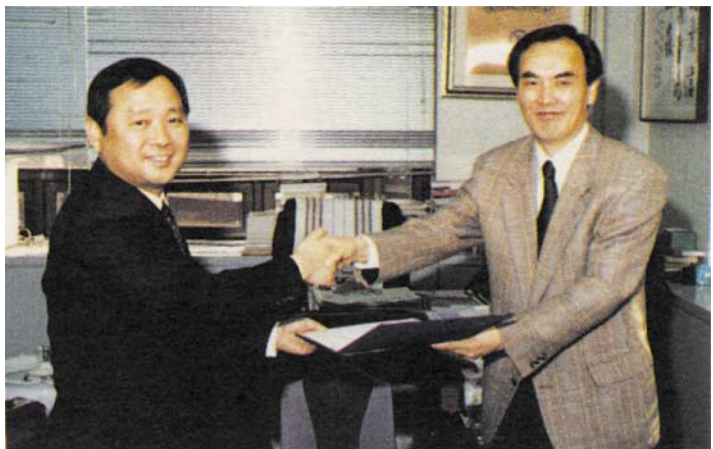


金仁圭위원

KBS해설위원) 후임으로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취재주간을 선정하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본보 논설위원은 상임 6명, 비상임 12명으로 구성됐다.

대한투자신탁 金鍾煥 사장 (재)관악회에 5백만원 전달



대한투자신탁(사장 金鍾煥·69년 法大卒)은 자체 공익기금 중 5백만원을 재단법인 관악회에 출연했다.

지난 1월 22일 대한투신 崔俊(69년 文理大卒)상무이사(사

진 左)가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에게 기금을 전달하며 『적은 액수이나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미 총동창회

뉴욕서 6차 평의원회 열기로

재미총동창회(회장 李丙俊)는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뉴욕에서 제6차 평의원회의를 개최한다.

뉴욕支部同窓會(회장 崔洙容)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평의원회의에서는 재미총동창회 신임 회장단 구성과 사업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시카고 지부

회원주소록 발간 준비

시카고支部同窓會(회장 李漢植)는 지난 11월 30일 래디슨호텔에서 安鍾九총영사를 비롯한 1백30여명의 동문가족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겸 송년파티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蘇鎮文(62년 齒大卒)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朴昌滿(60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蘇회장은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동창회 창립 15주년을 맞아 회원 주소록 발간을 중점사업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스턴 지부

장학금 4천달러 전달

휴스턴支部同窓會(회장 金東洙)는 지난 12월 28일 Houstonian호텔에서 9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파티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장학회 회칙을 개정해 학생 5명에게 4천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개선을 통해 새 회장에 許 泉(65년 工大卒)동문, 부회장에 郭雄吉(63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출했다. (雙)

■本會 事務處 辭令

林 明 奎(97년 인문대 서어
서문학과과수); 命 회원부 간사
盧 志 元(97년 인문대 종교
학과과수); 命 편집부 기자
(1월 13일자)

미술작품

李 英 恩 作



「꽃」, 캔버스에 오일, 53X 41cm, 96.

(작가 약력)

△54년 美大卒
△56년 서양화 연구과 수
료
△53년 국전 입선
△81년 한일 여류화가 20
인 초대전
△83년 부산산업대학 초
대전

△87년 已里여류연합회전
△개인전 3회
△92년 한국구상작가 초
대전
△96년 제24회 한국여류
화가회전
△現 한국여류화가회 자
문위원, 미술협회, 훈을
회 회원

주요 목차

느티나무 광장	9면
「고개숙인 아버지」 신드롬	(林炯斗)
동문을 찾아서	13면
서울시립극단 초대 단장	(金義卿)
이런 일 합니다	14면
맹인듬기운동 30년	(田溶星)
기획탐방	15면
초음파진단기 생산의 대명사	((株)메디슨)
화제의 동문	23면
사시합격학 女치과의사	(全賢姬)

시애틀 지부

신임 회장에李大源동문

시애틀支部同窓會(회장 李陽樞)는 지난 12월 7일 Battele Seattle Conference Center에서 정기총회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70여명의 동문

들은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에李大源(62년 師大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총회를 마친 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흥을 즐겼다.

조지아 지부

盧幸子 신임 회장 선출

조지아支部同窓會(회장 林漢膺)는 지난 12월 8일 Marriott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를 개최했다.

張雅惠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신임회장에 盧幸子(67년 文理大卒)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

출하고 부회장에 林壽岩(67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신임 盧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마련이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샌디에고 지부

梨大동문회와 합동송년회

샌디에고支部同窓會(회장 廉料鎬)는 지난 12월 21일 힐튼호텔에서 이화여대동문회와 합동으로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중에는 부인이

이대출신인 동문들이 다수를 차지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으며 90여명의 양교 동문들은 댄스파티와 노래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영국 지부

姜承求회장을 다시 선임

영국支部同窓會(회장 姜承求·수출입은행 영국현지법인 사장)는 지난 12월 19일 Kingswood 골프클럽에서 부부동반으로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姜회장을 재추대하고 부회장에 李守信(70년 商大卒·외환은행 런던지점장), 尹鎭浩(70년 法大卒·상업은행 런던지점장), 鄭聖鉉(71년 장기신용은행 런던현지법인 사장)동문을 선임했다.



인도네시아 지부

송년모임 통해 친목 다져

인도네시아支部同窓會(회장 裴相環)는 지난 12월 23일 자카

르타 힐튼호텔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8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오랜만에 이국땅에서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푸짐한 선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군산 지회

초대 회장에 金吉俊시장



군산支會同窓會(창립준비위원장 李鍾祿)는 지난 1월 21일 군산회집에서 8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金吉俊(54년 法大入)군산시장을 초대 회장에 선출하고 감사에 李庸顯(57년 師大卒·군산대학교수), 李柱民(68년 齒大卒·치과의원장)

동문을 선임했다.

군산대 金壽吉(73년 音大卒), 梁熙正(84년 音大卒)교수의 촉가와 축주에 이어 회원들은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97년 동창회 기금으로 5백만원을 조성키로 하고, 올해 군산지역 출신 모교 합격자에 대한 축하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 李鍾祿(47년 文理大卒·군장공학자), 文東鎭(50년 醫大卒·외과의원장), 鄭良順(50년 藥大卒·신광약국), 李柱完(50년 藥大卒·개정병원약국장), 姜斗植(51년 文理大卒·전북산업대총장), 蔡明默(51년 法大卒·변호사), 許環旭(52년 師大卒·개정看專학장), 申春湜(55년 法大卒·금성환경專학장), 蔡洙亨(55년 師大卒·前제일중교장), 全八現(56년 法大卒·변호사), 姜賢旭(61년 文理大卒·환경부장관)동문 △부회장: 李世賢(60년 師大卒·군산대학교수), 廉準世(62년 法大卒·대우상용자동차 부사장), 徐舜喆(64년 藥大卒·항도약국), 李鎭夏(66년 醫大卒·피부비뇨기과의원장), 金世振(69년 工大卒·기아특수강 부사장), 李相和(72년 工大卒·동양화학 부사장), 金貴童(74년 法大卒·변호사)동문 △총무이사: 李一洙(63년 師大卒·군산대학교수)동문 △재무이사: 李炫奎(85년 法大卒·변호사)동문 (變)

「관악 무역인회」 출범 초대 회장에 徐廷煥동문



한국무역대리점협회 회원사 중 모교 출신 모임인 「관악무역인회(약칭 관무회)」가 지난 1월 20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국화룸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金閔鍾(71년 藥大卒·마성상사 대표)동문은 관무회의 결성 취지를 통해 「한국무역대리점협회 1만3천여개의 회원사중 1천2백여개가 동문회원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모임이 결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17명의 발기인들이 힘을 모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 앞으로 동문간의 상호 협력 및 정보교환을 통해 협회의 보다 큰 발전을 이루는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李杰(74년 文理大卒·동도트레이닝대표)동문이 초대회장에 徐廷煥(64년 師大卒·테크노랜드대표·이공교역대표·한국무역대리점협회 부회장)동문을 추천하자,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무회가 영구히 발전하여

회원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상의하여 어려운 난관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총동창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로 회칙 제정은 물론 회장단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96년 10월에 모교 출신 15대 국회의원 모임인 「관악회」가 창립된 바 있다」고 설명하고 「오늘 「관무회」의 창립을 통해 동문들이 직능별로 힘을 모아 모교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차기회장으로 表相基(65년 工大卒·상지상사 대표)동문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 車東世(65년 商大卒)원장이 「국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雙〉



AFTAK 회장 후보에 (한국무역대리점협회) 表相基 상지상사 대표

(AFTAK) 회장후보로 추대된 表相基(65년 工大卒·상지상사 대표)동문은 「협회 회원사들중 모교 출신비율이 10%가 넘으며, 「관무회」에서 협회장 후보로 추대돼 뜨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공대 61학번 동기회장, 원자핵공학과 동창회장, 공대동창회 부회장, 본회 이사 등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해온 表동문은 현재 경제상황을 「세계속의 한국의 위기」라고 평가하고 「창조적인 전략에 의한 수출과 함께 보

다 효율적인 수입기능의 활용을 기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전략적 회복을 기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表동문은 회장에 선출되면 「WTO, OECD가입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국가 총 수출입규모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회원사들이 국가 경제발전에 명실상부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전 지부

金世烈·鄭鏞仁동문 고문 추대

대전支部同窓會(회장 吳熙弼)는 지난 10일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정기이사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동문들이 더욱더 일치단결하여 더불어사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자」고 당부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은 동창회 현황을 설명하고 「대전·충남지부가 더욱 발전하고 새해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동문 여러분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부임한 金世烈(61년 農大卒·한남대 총장), 鄭鏞仁(64년 法大卒·대전지방법원장)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법조계, 교육계, 금융계 등에 재직중인 10여명의 동문을 신임이사에 선임했다.

춘천 지부

베어스타운서 송년회

춘천支部同窓會(회장 李敏燮)는 지난 12월 27일 오후 6시 춘천 베어스타운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崔珏圭강원도지사를 비롯한 1백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대 동창회

宋宗義·安光燁동문 축하패 받아



좌로부터 金許男, 宋相現, 文鴻柱, 李爽熙, 金道昶, 琴震鎬동문.

法科大學同窓會(회장 李爽熙)는 지난 27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모교 崔松和부총장, 본회 孫一根상임설위원, 李世震사무총장 등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宋宗義법제처장과 安光燁통산부장관에게 축하패 증정이 있었으며,李회장과 모교 宋相現법대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새해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내자는 취지의 케이크 절단식이 있었다.

이후 文鴻柱동문의 건배제와 함께 40여 동문이 협찬한 경품 추첨을 하면서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모임을 마친 후 참석한 동문들에게 기념품과 낙산회보(55호)를 배포했다.

약대 동창회

이달 총회서 회원명부 배포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1월 14일 모교 호암생활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50여명의 동문들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同會는 오는 2월 25일 오후4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9년만에 발간되는 회원명부를 배포할 예정이다.(문의전화 701-3456)



상대 동창회

회장단·운영위원 모임 가져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21일 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회장단회의겸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동안 보여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정축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각

자 맡은 일을 통해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임원들은 96년도 동창회 활동보고와 97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치대 동창회

신년사업·모교지원 방안 논의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지난 1월 15일 롯데호텔 36층 피콕룸에서 97년도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金讚淑회장, 金

光男학장을 비롯해 40여명의 동문 및 모교교수들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올해의 동창회 사업계획 및 모교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호대 동창회

대학건물 건립 적극 지원키로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1월 8일 소피텔 엠배서더호텔 「서궁」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9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同會는 이날 동창회보 제13호를 배포했다.

楊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97년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말하고 『특히 간호대학 건물 건립을 올해 목표로 삼아 동문 전체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李笑雨학장은 『모교에서 간호교육을 시작한지 9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간호학 90년史 발간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면서 『자료 수집 등 일련의 사업에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申鉉玉동문의 건배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한 후, 만찬을 함께 하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志)

가정대 동창회

2월 18일 정기총회

家政大學同窓會(목련회 회장 李仁子)는 오는 2월 18일 정오 르네상스호텔에서 9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문의전화 880-6806)

의대 동창회

2월 16일 바둑대회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오는 2월 16일 의대 제1교수회의실에서 바둑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2월 17일에는 한남클럽에서 상임이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전화 740-8183)

상송회

司空壹회장 선임



상대출신 태권도 유단자들의 모임인 상송회(회장 愼平宰)는 최근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이날 신임회장에 司空壹(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동문(사진)을 신임회장에 선임했다.

또한 부회장에 李學甲(대림요업부사장)·葛政雄(대림정보통신대표이사)·尹炳恩(대우부장)·具京哲(공인회계사)동문을 선임하고 간사장에 徐光烈(삼성그룹부장)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신문학과

신대원동창회와 통합

신문학과동창회(회장 朴承寬)는 지난 12월 27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가졌다.

차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 정축년에는 동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한편 同會는 신문대학원동창회(회장 李濟薰)와 통합을 논의 중이며 오는 3월중 『통합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알림)

本報는 매월 마지막 주에 개최되는 동창회 관련 행사들을 더욱 신속하고 자세히 전달하고자 2월호(제227호)부터 발행일자를 15일로 변경합니다.

만평

李元馥





좌로부터 嚴俊傑, 崔 桓, 李東和, 吉昇欽, 姜賢旭, 金榮國동문.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통합 공동 회장에 金榮國·姜賢旭동문

정치·외교학과동창회(공동회장 金榮國·姜賢旭)는 지난 1월 14일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동창회 통합모임겸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통합은 40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참석자들은 「정치·외교학과동창회」의 창립을 거룩한 생명의 탄생에 비유하며 형제다운 우정을 다졌다.

同會는 초대회장에 현재 정치학과동창회장인 金榮國동문과 외교학과동창회장인 姜賢旭동문을 공동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에 具範謨, 殷丙基, 吉昇欽, 朴範珍, 崔 桓, 李東和, 申仲植, 洪思德, 嚴俊傑, 洪聖穆동문을 선임하고 감사에 李圭澄, 金 駒동문을 선임했다.



불어불문학과

초대 회장에 朴孟浩동문

불어불문학과동창회(준비위원장 朴孟浩)는 지난 17일 롯데호텔에서 3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元潤洙 모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은 초대회장에 朴孟浩(민음사대표)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부회장에 梁東七(외교안보연구원 부장)·池敬弘(한대 대표이사)·俞平根(모교교수)·金仁植(제일유니버설대표)·尹英愛(상명대학교수)동문을 선임하고 총무에 盧 燦(외환은행 국외여신차장)동문을 선임했다. 이외에 자문위원과 상임이사선임은 회장단에 일임했다.

종교학과

신임 회장에 宋炳瓚동문

종교학과동창회(회장 黃弼昊)는 지난 25일 한국방송통신대 구내 국제회관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黃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춘의 4년 이상을 「종교학과」라는 테두리 안에서 동고동락했다는 큰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자의 생업이 바쁘겠지만 자주 만나서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宋炳瓚(63



년 文理大卒·LG남서울대표이사)동문(사진)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부회장에 李恩奉·李貞圭·金鍾瑞·柳聖旻·金道圓동문을, 감사에 尹承容·尹元澈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상대 10회

졸업40주년 행사 개최



상대10동기회(회장 崔海殷)는 최근 졸업40주년 기념식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임원개선을 통해 신입회장에 金方淵(태광산업 감사)동문(사진)을 선출했다.

또한 수석부회장에 張基郁(삼왕주철대표이사)동문, 부회장에 姜豪錫(부일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元孟植(한보상호신용금고 감사)·全泳周(세프라인 금속 상임감사)동문을 선임했다.

공대 20회

발전기금 1억 전달

공대20동기회(준비위원장 李正一)는 지난 12월 14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졸업3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회원들은 창립총회에서 동기기 회칙을 통과시키고 초대회장에 졸업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인 李正一(미포조선사장)동문(사진)을 선출했다.

또한 각 학과별로 부회장에 金錫澈, 吳鉦洙, 李泳宰, 盧根植, 金興勳, 金邦光, 成基祥, 李義南, 李正國, 申鉉周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同會는 韓松曄학장에게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하고 은사에 대한 기념품 증정식을 가졌다.

공업화학과

金石中회장 선출



공업화학과동창회(회장 趙起濟)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동창회 사업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입회장에 金石中(야진 엔지니어링대표)동문(사진)을 선임하고 앞으로 동문 상호간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나가기로 했다.



영어영문학과

새해엔 모임 자주 갖기로

영어영문학과동창회(회장 金鍾云)는 지난 1월 16일 롯데호텔 36층 벨뷰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玄永源, 趙俊學, 金榮淑동문을 비롯해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해에는 좀더 많이 그리고 자주 만나서 우의와 정을 나누자」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은 96년도 결산과 97년도 예산을 승인하고 만찬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법대 26회

새 회장에 李三燮동문



법대26동기회(회장 俞重植)는 최근 「아세아 도원」에서 李仁濟경기도지사를 비롯한 50여명의 동문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同會는 이날 96년도 결산, 동호모임 활동보고를 마치고 회원 동정 및 경조사 공지 후, 임원개선을 했다.

회원들은 신입회장에 李三燮(금호주택할부금융 대표이사)동문(사진)을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에 梁東信(장기신용은행 신탁부장)동문을 선임했다.

또한 부회장에 李旻在(춘천지검 차장)·河哲容(변호사)·金

雄地(변호사)동문, 총무에 柳濟淸(청춘산업대표)동문, 감사에 權純旭(변호사)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직역군을 10개로 나누어 직역별 간사를 선임하는 한편 동호회별 회장을 두어 동문들의 참여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약대 19회

회장에 李寬淳동문 추대



약대19동기회(회장 鄭 勇)는 지난 12월 5일 롯데호텔 목련홀에서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30여명의 회원들은 임원개선을 통해 신입회장에 李寬淳동문(사진)을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에 金思雄·金忠燮동문, 총무에 金永澤동문, 고

문에 鄭 勇동문, 홍보위원에 朴建治동문을 선임하고 각 지방지부별 회장도 함께 선임했다.

국어국문학과

姜信沆회장을 재선임

국어국문학과동창회(회장 姜信沆)는 지난 1월 2일 모교 자하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을 통해 姜信沆회장을 연임시키고 96년도 결산과 97년도 예산을

심의했다.

한편 지난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동문이 출연한 장학금을 이날 이정복(박사과정)군에게 전달하고 그동안 모은 2천만원의 장학금으로 매년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元)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 닥쳤고 고개숙인 아버지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또 소설 「아버지」가 베스트 셀러가 되어 날개 돋힌듯 팔려 나갔다.

가정 희생하며 일군 일꾼

명예 퇴직을 당한 장년의 아버지들은 큰 충격으로 당황하고 있다. 자녀 교육비에서 경조비에 이르기까지 돈 쓸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며 재취업이나 창업의 문은 너무나 좁고 자칫 무능력자로 낙인찍히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위축되고 만다. 그들은 항변 한다.

『우리 세대들은 전체적으로 소모품 취급을 받아왔다. 20대에는 경제부흥의 기치아래 피땀을 흘려왔고 직장을 위해서라면 가정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해왔다. 국민 소득 1만달러 시대를 일군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인데 그 노력의 대가가 우선 실직 대상이라니...』

「가정과 직장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라는 어떤 신문조사 결과를 보면 화이트 칼라군의 52.8%가 직장을 더 중요하게 꼽고 있다. 성장 일변도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정보다 직장에 충성을 바쳤다는 애기다.



林炯斗

서울방송 제작본부장

「고개숙인 아버지」신드롬

「과리」에서는 트럭운전사들이 연금으로 편하게 생활하려고 정년을 감축하라는 시위도 있었다지만 우리는 복지문제조차 아직은 요원한 사회다.

지금 수난을 당하는 장년들은 고개숙인 아버지들 본 일이 없는 세대이다. SBS 드라마 「형제의 강」에서 처럼 장남을 숭배하듯 편애하며 권위를 위해 무모하리만치 소리치며 좌충우돌하는 아버지의 모습만 보

아온 세대들이다.

「가을 소나타」라는 특집드라마를 방송했을때 시청자들의 엄청난 반응때문에 놀란 일이 있다. 우리 아버지들의 실상을 너무 리얼하게 잘 그렸다는 칭찬도 있었고 실직의 충격을 꼭 비극적인 결말로 끌고 가야만 하느냐는 항의도 많았다.

퇴직을 하고 착실하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의 불멘 반응이다. TV드라마에서도 여류작가들이 곧잘 「왜소한 아버지」 「기가 빠진 남편들」을 단골 메뉴처럼 그린다고 남성 시청자들이 불평을 해왔다.

이런 시청자들의 갈증을 달래기 위해 서울방송은 봄에 「나는 왕이로소이다」라는 작품을 기획하고 있다.

인생 황금기의 당당함 보고 싶다

사회라는 전쟁터에 나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싸웠고 이전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아버지!

마땅히 승전한 왕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제 그들이 인생을 의연하게 또 그 대가를 적절히 누리는 당당한 모습을 TV드라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 동문에 고함

和而不同의 모습을 보여주자

나의 친지 중에 자주 「서울대 망국론」을 역설하던 사람이 있었다. 지방에서 사립대학을 나온 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출신대학 때문에 이런 저런 설움을 많이 겪었던 듯하다.

그의 이런 감정은 「서울대 출신들이 똥똥 뭉쳐 다 말아 먹는다」는 깊은 울분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

서울대인만의 족복

서울대학 출신들이 「똥똥 뭉치는 것」도 「말아 먹는 것」도

별로 보지 못했던 필자는 그의 주장을 지나친 피해의식이라고 웃어 넘겼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동문들 모두가 누리는 축복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온 대학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고 학벌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아프지 않다

고 다른 사람도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이기적 단합 없어야

나를 길러준 모교를 사랑하고 동문간의 우의를 증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세계의 대학 서열에서 랭킹 700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내놓는 일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서울대 동문들은 남과 다른 襟度를 보여주었으면 한

다. 소집단·일차집단의 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은 우리 동문들이 해야 할 바가 아니다.

「緣」에 얽매어선 안돼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서울대 동문들의 단합이 잘 안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역설을 펴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공동체의식을 살리고 민주화와 세계화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



愼右宰(65년 文理大卒)
한국언론연구원장

는다.

이제 다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연과 혈연, 그리고 학연에 따라 맹목적으로 이합집산하는 우리 사회의 후진성은 이제 마감되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동문들은 「和하되 不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동정

수상

▲柳達永(36년) 農大卒·성천문화재단이사장=지난 1월 10일 「제2회 柳-韓賞」 수상자로 선정됨.

▲曹圭光(48년) 文理大卒·前헌법재판소장=최근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창조근정훈장 수

여자로 선정됨.
▲徐世鈺(50년) 美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월 20일 일민문화관에서 재단법인 일민문화재단이 제정한 「제2회 일민예술상」을 받음.

▲洪麗信(54년) 看護大卒·前모교 간호대학장=최근 미네소타대학으로부터 우수동문으로 선정돼 수상함.

▲金鎮佑(56년) 法大卒·헌법재판소 재판관=최근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창조근정훈장 수여자로 선정됨.

▲金泳達(61년) 農大卒·산림청이사관=최근 임업연구원장에 취임함. 또한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趙南一(65년) 工大卒·해양수산부이사관=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宋鎮赫(65년) 文理大卒·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本報論說委員=최근 삼성언론재단이 주최하는 「제1회 삼성언론상」 논평·비평부문상을 받음.

▲裴在堧(68년) 法大卒·대통령비서실검사=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李永楨(71년) 商大卒·재경원사회교육예산심의관=최근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재해대책

업무 추진 유공자로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朱鐵基(73년) 文理大卒·외무부 부이사관=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金相喜(73년) 法大卒·서울지검 검사=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吳志哲(73년) 法大卒·문화체육부이사관=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金容在(75년) 文理大卒·통일원 제3정책관실담당관=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柳子孝(75년) 師大卒·시인·서울방송 해설위원=최근 시조집 「내영혼은」으로 제9회 현대시조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鄭秉錫(76년) 社會大卒·노동부이사관=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崔泰昌(78년) 行大院卒·특허청이사관=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朴仁淑(81년) 看護大卒·모교병원 간호사=최근 모교병원이 선정하는 96년 「올해의 간호사」에 뽑힘.

▲梁芳詰(84년) 保大院卒·환경부이사관=최근 96년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돼 황조근정훈장을 받음.

▲李相輝(86년) 工大卒·KAIST교수=최근 한·중우호교류기금회에서 주최하는 「한·중청년 학술상」 공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趙顯甫(86년) 工大卒·포항공대교수=최근 미국생산공학회가 선정한 「젊은 생산공학자상」 수상자로 뽑힘.

▲趙亮鎬(29기 AMP·대한항공사장)=최근 美 항공·여행정보지 「트래블 에이전트」가 뽑은 「세계화에 기여한 항공경영인」으로 선정됨.

▲趙鍾益(39기 ACAD·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최근 96년도 정부투자기관 자체감사 우수기관에 선정돼 표창을 받음.

이동·선임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副會長=최근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에서 임기 4년의 제3대 인제대학교 총장에 취임됨.

▲李榮德(52년) 師大卒·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지난 1월 23일자로 한국사회복지협회 회장에 선임됨.

▲李光壽(54년) 商大卒·前서울신탁은행장=최근 거평그룹 소그룹 회장에 취임함.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副會長·師大同窓會長=지난 1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케이블 커뮤니케이션 회장 취임식을 가짐.

▲李基和(57년) 工大卒·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사장=최근 태광산업(주) 회장으로 승진함.

▲李相玉(57년) 文理大卒·前외무부장관=최근 민족통일연구원 이사장에 취임함.

▲咸正鎬(57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월 27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변협 차기회장에 추천됨.

▲李昌圭(58년) 文理大卒·前한국은행감사=최근 보험협회 이사장에 취임함.

▲魚允培(58년) 法大卒·중소기업국제협의회회장=지난 1월 7일자로 숭실대학교 총장에 취임함.

▲吳赫柱(60년) 文理大卒·前대통령 경제비서관=최근 주간지인 「한국조세신문사」 회장에 취임함.

▲金尙植(61년) 文理大卒·前영화진흥공사 사장=최근 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金宇哲(61년) 文理大卒·前KBS 제작단 사장=최근 UBS(가칭)울산방송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尹正鎭(61년) 法大卒·아시안나항공부사장=최근 금호그룹 회장비서실 사장에 취임함.

▲金基中(61년) 商大卒·경방대표이사=최근 (주)경방 및 경방필화점 대표이사에 취임함.

▲金鈺洙(61년) 商大卒·LG-EDS시스템사장=지난 1월 28일 창립총회를 가진 한국인터넷협회 초대회장에 선임됨.

▲申昌德(62년) 工大卒·영창산업건설대표이사 사장=최근 영창산업건설(주) 부회장으로 승진함.

▲曹士鴻(62년) 工大卒·두산백화 대표이사 사장=최근 (주)두산백화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함.

▲梁東七(62년) 文理大卒·외무부 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장=최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에 임명됨.

▲崔鍾泳(62년) 法大卒·대법원 대법관=지난 1월 24일 제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申尙玉(63년) 家政大卒·중앙대교수=최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피선됨.

▲黃熙善(63년) 工大卒·前갑일전자대표이사=최근 아남그룹 기조실 신규사업담당 사장에 취임함.

▲尹權相(63년) 文理大卒·강원대교수=최근 미생물학회 평의원회의에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에 선출됨.

▲李庚文(63년) 文理大卒·한국관광공사 사장=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97 태평양 아시아 관광협회 이사회」에서 2년 임기의 이사로 재선임됨.

▲安龍得(63년) 法大卒·대법원 대법관=최근 법원행정처 처장에 임명됨.

▲柳僊烈(63년) 法大卒·한국타이어제조 부사장=최근 ASA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張應水(63년) 法大卒·헌법재판소 사무차장=최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내정됨.

▲朴在潤(63년) 商大卒·前통상산업부장관=최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임명됨.

▲崔靑林(63년) 商大卒·조선일보 논설위원실장·本報論說委員=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에 선임됨.
▲孫同錫(63년) 齒大卒·모교교수=최근 학교법인 순신대학교 재단 이사회에서 제3대 총장에 선출됨.

▲韓亨洙(64년) 工大卒·제일합섬 대표이사 부회장=최근 제일합섬 대표이사 부회장겸 디지털미디어 대

표이사에 취임함.
▲車常樹(64년) 農大卒·동양시멘트부사장=최근 동양시멘트(주) 마포개발사업본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수석논설위원=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에 선임됨.

▲辛成梧(64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최근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에 임명됨.

▲韓眞裕(64년) 法大卒·미도과유통사업본부 대표이사=최근 대농그룹 종합조정실 사장에 취임함.

▲卞在國(65년) 工大卒·유공전무=최근 SK컴퓨터통신 사장으로 승진함.

▲沈玉鎭(65년) 工大卒·현대건설부사장=최근 현대엔지니어링(주) 사장으로 승진함.

▲車錦烈(65년) 工大卒·신화건설 전무=최근 TMS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李正姬(65년) 看護大卒·前중앙대교수=최근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서울병원 이사보에서 이사로 승진함.

▲金種心(65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위원=최근 관훈클럽 편집담당 임원에 선임됨.

▲李成海(65년) 文理大卒·정보통신부 지원국장=최근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金孝成(65년) 法大卒·특허청 항고심판소장=최근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김.

▲宋鎮勳(65년) 法大卒·부산고법 법원장=최근 대법관에 취임함.

▲李源浩(65년) 法大卒·특허청 심판소장=최근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됨.

▲金建鎭(66년) 文理大卒·前중앙일보 시사지담당국장=최근 중앙일보 사장실장에 취임함.

▲金榮培(66년) 文理大卒·前중앙일보 기획정치담당 부국장=최근 중앙일보 뉴미디어 담당국장으로 승진함.

▲李永德(66년 文理大卒·조선일보 편집부국장)=최근 관훈클럽 기획담당 임원에 선임됨.
▲張石煥(66년 文理大卒·통상산업부 기획관리실장)=최근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에 선임됨.

▲李健祐(66년 法大卒·통상부 산업정책국장)=최근 신한국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김.

▲崔弘健(66년 法大卒·중소기업청 차장)=최근 통상부 기획관리실장에 임명됨.

▲張龍均(67년 工大卒·SKC부사장)=최근 (주)SKC사장으로 승진함.



▲玄 珩(67년 工大卒·메트로프로덕트 부사장)=최근 (주)미도파 유통사업본부 대표이사에 취임함.

▲曹舜文(67년 文理大卒·노동부 근로기준국장)=지난 1월 14일자로 노동부 고용정책 실장으로 승진함.

▲金弘經(67년 法大卒·신한국당 전문위원)=최근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에 임명됨.

▲李 樑(67년 法大卒·외무부 국제연합국장)=최근 駐보스턴 총영사에 임명됨.

▲崔錫珍(67년 師大卒·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연구팀장)=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 본부장에 취임함.

▲朴希俊(67년 商大卒·모토로라 반도체 통신사장)=최근 삼성전자 정보통신본부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沈政秀(67년 商大卒·前증권감독원 부원장보)=최근 동부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吳光烈(67년 商大卒·보광해미리마트사장)=최근 한국편의점협회장에 선임됨.

▲金炳日(64년 文理大入·국회에결특위 수석전문위원)=최근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에 임명됨.

▲康景豪(68년 工大卒·한라중공업사장)=최근 한라중공업(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함.



▲李瑞炯(68년 工大卒·금호건설 대표이사 부사장)=최근 (주)금호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文昌錫(68년 文理大卒·두산그룹 기초실장부)=최근 두산그룹 홍보실장에 취임함.

▲辛鉉雄(68년 文理大卒·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지난 1월 13일자로 문화체육부 차관보에 임명됨.

▲姜文昌(68년 商大卒·두산건설 부사장)=최근 두산건설(주) 사장으로 승진함.



▲崔吉善(69년 工大卒·한라중공업 조선담당부사장)=최근 한라중공업(주) 조선담당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李成俊(69년 文理大卒·한국일보 편집인·本報論說委員)=최근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부회장에 선임됨.



▲金圭七(69년 法大卒·한국방송공사이사)=최근 산업기술정보원 원장에 취임함.

▲南宮鏞(69년 法大卒·신한국당 상근연구위원)=최근 재경원 세제실장에 임명됨.

▲尹增鉉(69년 法大卒·재경원 세제실장)=최근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에 임명됨.

▲張基澤(69년 法大卒·쌍용중공업 전무)=최근 쌍용중공업(주) 부사장으로 승진함.

▲洪 哲(69년 商大卒·前건설교통부 차관보)=지난 1월 24일자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임명됨.

▲金一燮(69년 商大卒·삼일회계법인 부회장)=지난 1월 22일자로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에 선임됨.

▲閔賢植(70년 工大卒·민현식건축연구소장)=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 공간연출과 교수에 임명됨.

▲尹洪九(70년 工大卒·동양산업기계 대표이사 부사장)=최근 동양산업기계(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李永來(70년 農大卒·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장)=최근 농림수산부 차관보에 임명됨.

▲姜錫昊(70년 文理大卒·모교교수)=최근 한국경영과학회 총회에서 신입회장에 선출됨.

▲李慶衡(70년 文理大卒·서울신문 정치부장)=최근 관훈클럽 회계담당 임원에 선임됨.

▲陳昌昱(70년 文理大卒·前중앙일보 국제부차장)=최근 중앙일보 뉴스워크 주간에 취임함.

▲金潤澤(70년 經大院卒·양천장학회 이사장)=최근 중국 연변대학 객좌교수로 위촉됨.



▲朴仁光(71년 師大卒·신화유화 대표이사)=최근 신화건설(주)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李相樂(71년 商大卒·쌍용건설 전무)=최근 쌍용건설(주) 부사장으로 승진함.

▲李鎮芳(71년 商大卒·대한해운 전무)=최근 대한해운(주) 부사장으로 승진함.

▲蔡富永(71년 商大卒·동양할부금융 대표이사 부사장)=최근 동양할부금융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玄定澤(71년 商大卒·재경원 대외경제국장)=최근 OECD공사에 임명됨.

▲李濟薰(71년 新大院卒·삼성그룹 회장비서실 부사장·新大院同窓會長)=최근 삼성그룹 비서실장 보좌역(전략홍보담당)에 취임함.



▲文昌克(72년 文理大卒·중앙일보 논설위원)=최근 관훈클럽 서기로 선임됨.

▲曹貞植(72년 法大卒·성원산업개발전무)=최근 가문건설 사장겸 성원산업개발(주) 부사장으로 승진함.

▲黃活雄(72년 法大卒·서울시경 경무부장)=최근 경찰청 경무국장으로 승진함.

▲廉然浩(74년 商大卒·동양SHL대표이사 부사장)=최근 동양SHL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함.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本會副會長)=최근 제48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재선출됨.



▲安京鎮(75년 環大院卒·前강원도지사)=지난 12월 16일자로 99년 강원 동계 아시아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함.

▲梁宗和(77년 工大卒·대우건설 부장)=최근 (주)대우건설 이사로 승진함.

▲李啓炯(77년 師大卒·통상산업부장관 비서관)=최근 통상산업부 석유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김.

▲金昊泳(80년 工大卒·선경건설 지하비축팀 차장)=최근 선경건설(주) 지하비축팀 부장으로 승진함.

▲金奇南(81년 工大卒·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수석연구원)=최근 30대의 나이로 삼성전자 이사보급 연구위원으로 승진함.

▲元鐘胤(81년 工大卒·인성정보 이사)=최근 대웅제약 계열 정보통신업체인 인성정보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宋榮大(2기 ACAD·前통일원차관)=최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제9대 의장에 선출됨.

▲李太教(4기 AMP·한성대 대학원장)=지난 1월 15일 열린

고국서 제2의 인생 시작 前뉴욕의대 吳慶均박사

69년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의과대학과 텍사스대 M.D.앤더슨 암센터 등에서 각종 일반 내과질환은 물론 암, 위장질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吳慶均동문(사진)이 25년의 미국 이민생활을 정리하고 최근 고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미국 내과전문의협회, 내시경전문인협회, 암전문협회 정회원으로 있는 吳동문은 새로 문을 열어 지난 11월 11일부터 진료를 개시한 서울강남병원에 진료부장 겸 내과부장을 맡아 의술을 펼치고 있다.



吳동문은 『고국 품에 돌아와 국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남은 여생을 바치고 싶었다』고 말하고 『동문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초대 금융개혁위원장에 본회 朴晟容부회장 취임

지난 22일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에 朴晟容(50년 文理大入·금호그룹 명예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本會副會長)동문(사진)이 취임했다.

또한 기업인, 금융인,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31명의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중 金秉柱(62년 商大卒·서강대교수·금

용산업발전심의회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동문이 선임됐다. (志)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재선임됨.

▲朴仁圭(5기 AIP·前대주건설 부회장)=최근 성원건설(주) 부회장에 취임함.

▲李重根(5기 AMP·부영대표이사)=최근 「사랑의 각막은행」 제2대 은행장에 취임함.

▲金天賜(9기 AIP·두산정보통신 전무)=최근 두산정보통신(주) 사장으로 승진함.

▲金鎮載(16기 AMP·국회의원)=최근 국제경기지원 특위 위원장에 임명됨.



▲李來炳(25기 AMP·현대건설 사장)=지난 1월 17일 열린 대한역도연맹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제34대 회장에 재선출됨.

▲沈鉉榮(27기 AMP·고려산업개발고문)=최근 청구그룹 건설담당 부회장에 취임함.

▲宋基元(28기 AMP·대한해운 사장)=최근 대한해운(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진함.

▲李恒圭(28기 ACAD·해양수산부 제1차관보)=최근 한국선급 회장에 취임함.

▲柳惠熙(29기 AMP·경동제약 대표이사 사장)=최근 경동제약(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승

진함.

▲崔相南(31기 AMP·신화건설 대표이사 사장)=최근 신화건설(주) 부회장으로 승진함.



▲金勝安(33기 AMP·기아자동차 전무)=최근 아시아자동차(주) 부사장에 취임함.

▲李鍾畋(34기 AMP·前대전 MBC사장)=최근 파라비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申東英(35기 AMP·기아자동차 전무)=최근 기아전자(주) 부사장으로 승진함.

▲李清男(37기 ACAD·육군종합행정학교장)=최근 국방부 2차관보에 임명됨.

▲金麗煥(38기 AMP·대한통운 사장)=최근 사단법인 한국물류협회 제2대 회장에 취임함.



▲金河準(38기 ACAD·前국립교육평가원장)=최근 제13대 교원공제회 이사장에 취임함.

▲趙興濟(40기 ACAD·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최근 대한광업진흥공사 감사에 연임됨.

(12면에 계속)

행사·출간

▲張禮準(49년 商大卒·사단법인 상우회 회장·商大同窓會長)= 지난 1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 및 회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정기총회 겸 신년인사회를 개최함.

▲田溶元(54년 工大卒·모교교수)= 오는 3월 7일 오후 6시 모교 호암생활관 컨벤션홀에서 정년퇴임연을 개최함.

▲鄭嘉卿(55년 師大卒·국회의원·本會副會長)= 지난 1월 9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에 참석함.

▲尹鍾琳(57년 文理大卒·홍익대교수)= 지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하와이대에서 열린 범태평양지역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 총회 및 학술회의에 참석함.

▲李徽永(57년 法大卒·세계인재개발원 회장)= 지난 1월 17일 롯데호텔에서 창립1주년 및 「한국형 신인사전략」출판기념특별세미나를 개최함.

▲鄭東華(57년 師大卒·인천교대총장)=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인천교대에서는 최근 교원 양성체제 개혁에 대비해 초등교원(경기·인천지역)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공개심포지엄을 개최함.

▲丁靑燮(57년 師大卒·용산고교장)= 최근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주제로 제10회 영어교육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함.

▲權英子(59년 文理大卒·국회의원)= 지난 1월 9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여성지도자 신년교례회에 참석함.

▲黃仁吉(62년 文理大卒·아남산업사장)= 지난 1월 10, 11일 양일간 충남 도고과라다이스호텔에서 97년도 상반기 경영혁신 세미나를 개최함.

▲李元魯(62년 醫大卒·삼성의료원 내과부장)= 최근 일반인

을 겨냥한 대중의학서 「이원로 박사의 최신 의학정보」(삶과 꿈)와 서정시집 「햇빛 유난한 날에」(마을)를 출간함.

▲朴英哲(63년 商大卒·한국금융연구원장)= 최근 서울 명동에 신축한 은행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현판식을 가짐.(전화 3705-6280)

▲崔秉烈(64년 法大卒·국회의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本會副會長)= 지난 1월 29일 삼성화재 본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기 어머니 생활안전지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함.

▲徐京善(64년 音大卒·한양대교수·한국여성작곡가회 회장)= 지난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마닐라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작곡가연맹대회 및 음악제에 참석, 관현악을 위한 「詩曲」을 발표하고 재무담당 본부이사의 자격으로 이사회 및 총회에 참가함.

▲李正姬(65년 看護大卒·삼성병원)= 최근 병원경영 연수차 미국 시카고 로올라대학병원 등을 방문하고 귀국함.

▲邊炯(65년 文理大卒·한국투자신탁사장)= 최근 고객이 지정하는 학교를 지원하는 신상품 「모교사랑」을 개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李弼坤(65년 商大卒·대한태권도협회장·삼성중국본사회장)= 지난 1월 23일 올림픽회관에서 97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함.

▲金安濟(65년 行大院卒·모교교수)= 최근 저서 「한 한국인의 삶과 발자취」를 출간함.

▲吳明(66년 工大卒·그린해밀리운동연합총재)= 지난 1월 24일 동아일보 총정으로 사옥에서 姜英勳유엔

환경계획총재 등을 초청, 신년모임을 가짐.

▲趙洪來(67년 文理大卒·농어촌진흥공사 사장)= 최근 우리나라 농업사에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하수, 농업토목 관련 자료를 총정리한 「한국지하수총람」과 「농공기술 50년사」를 발간함.

▲鄭東俊(67년 行大院卒·한국인사관리자협회장)= 지난 1월 28일 인사관리회관에서 「파업에 대처하는 인사노무관리」를 주제로 고급인사관리 강좌를 개최함.

▲劉里知(68년 美大卒·모교교수)=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세계현대아트에서 열린 「삶의 아름다움 5인의 공예전」에 참가함.

▲愼克範(68년 敎大院卒·한국교육학회·교원대교수)=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난징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한 학교 행정가의 자질향상 방안」을 주제로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함.

▲李孝桂(68년 行大院卒·한국토지공사 사장)= 공공기관 최초로 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표준작업지시서인 「건설공사 전문시방서」를 발간함.

▲黃仁惠(69년 美大卒·화가)= 지난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작품전을 가짐.

▲金永燮(70년 商大卒·관세청장)= 지난 1월 24일 관세청 국제회의실에서 「제15회 국제관세의 날」을 맞아 통상관련 인사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함.

▲張相鉉(70년 行大院卒·온세통신사장)= 지난 1월 16일부터 24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 및 다국적 통신업체 글로벌경영자회의에 참석함.

▲孫益壽(70년 行大院卒·데이콤사장)=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육문화회관에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플립스와 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林玄鎭(71년 文理大卒·나라정책연구회장·모교교수)= 최근

「노동법 개정 평가 및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함.

▲沈瑛燮(74년 保大院卒·국립환경연구원장)= 최근 러시아환경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모스크바대학과 한·러환경공동위원회 합의과제 등을 협의함.

▲姜在涉(74년 法大卒·국회법사위원장)=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일빌딩 301호에서 鄭承和(78년 法大卒)변호사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열고 축하연을 가짐.

▲羅成淑(75년 美大卒·서울산업대교수)=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터키, 그리스, 이집트에서 한국여류시각디자인협회 전시회를 개최함.

▲黃錦美(76년 看護大卒·메디메디아 코리아사장)= 일반인을 위한 건강책자 「우리 가족 건강가이드」를 출간할 예정임.

▲成白文(87년 工大卒)= 최근 제32회 기술고등고시에서 최고득점자로 합격함.

▲崔鉉烈(3기 AMP·엔케이그룹 회장)= 최근 홍콩현지법인과 중국 광둥성의 3개 공장을 방문, 사업투자 등을 검토함.

▲趙錫來(11기 AMP·효성그룹 회장)=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함.

▲金昌熙(16기 AMP·대우증권 사장)= 지난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펀드이사회에 참석함.

▲朴寬用(18기 ACAD·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ACAD同窓會長)= 지난 1월 1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환경과 에너지」를 주제로 제10차 조찬세미나를 개최함.

▲鄭均和(36기 AMP·나라기획사장)= 최근 삼성금융플라자 21층 연수실에서 「올바른 광고, 합리적인 소비자」를 주제로 강연함.

▲朴鍾植(41기 AMP·수협중앙회장)=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 법률지식과 소송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어민사랑기금 3천5백만원을 전달함.

(정리=金志妍기자)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양장일 군(88년 農大卒)·최재숙 양=2월 15일 오전 11시.

*천정환 군(95년 人文大卒)·이승은 양=2월 15일 오후 12시30분.

*이유상 군(95년 師大卒)·최인정 양=2월 15일 오후 2시.

*채환규 군(91년 人文大卒)·이미주 양=2월 22일 오후 12시30분.

*정재욱 군(95년 法大卒)·정소영 양=2월 22일 오후 2시.

*박지영 군(88년 社會大卒)·정신재 양=2월 22일 오후 3시30분.

*문창영 군(96년 農大卒)·김석정 양=2월 23일 오전 11시.

*김시철 군(87년 農大卒)·이진숙 양=2월 23일 오후 12시30분.

*김상국 군(94년 農大卒)·김양희 양=2월 23일 오후 2시.

*윤경진 군(87년 人文大卒)·윤정 양=3월 1일 오후 12시30분.

*이영돈 군(92년 農大卒)·안경희 양=3월 1일 오후 2시.

*김동민 군(97년 農大卒)·문선화 양=3월 2일 오후 12시30분.

*윤정익 군(91년 工大卒)·심원경 양=3월 2일 오후 2시.

*오창민 군(94년 師大卒)·박정남 양=3월 2일 오후 3시30분.

*이정길 군(91년 農大卒)·신지원 양=3월 8일 오후 2시.

*이영일 군(92년 自然大卒)·유정현 양=3월 8일 오후 3시30분.

*김화섭 군(90년 自然大卒)·김남희 양=3월 9일 오후 12시30분.

*이훈석 군(91년 人文大卒)·김미양 양=3월 9일 오후 3시30분.

*권희용 군(94년 自然大卒)·양혜영 양=3월 15일 오후 12시30분.

*박종생 군(92년 人文大卒)·김미혜 양=3월 15일 오후 2시.

*강석도 군(94년 工大卒)·황선아 양=3월 15일 오후 3시30분.

방송위에 동문 5명 金昌悅위원장 재선임



元佑鉉(65년 法大卒)부위원장이 재선출됐다.

한편 방송위원 9명 가운데 河龍出(7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 申貞休(57년 文理大卒), 權 誠(66년 法大卒·서울고법 부장판사)동문을 비롯한 행정부 및 사법부 추천위원 6명이 임명됐으며, 남은 3명의 위원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0일자로 방송위원회 金昌悅(58년 法大卒·本報論說委員)위원장(사진)과

美「한국현대공예 15인전」 權純亨동문 등 4명 참가



權純亨동문



李信子동문



朴淑姬동문



姜燦均동문

한국현대공예의 원로중진 작가 15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미국의 북아리조나대학 미술관과 펜실바니아 피츠버그 미술관의 초대로 1, 2차에 걸쳐 개최된다.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북아리조나대학 미술관과 4월 4일부터 6월 21일까지 피츠버그 미술관에서 각

각 열릴 이번 전시회에는 도자기, 섬유, 금속공예 부문에 權純亨(55년 美大卒), 李信子(55년 美大卒·美大同窓會長), 朴淑姬(62년 美大卒), 姜燦均(63년 美大卒)동문이 각각 참여해 워크샵과 강연회 등을 갖고 한국 현대공예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志)



金義卿 서울시립극단 초대 단장

“극장이 있는 도시인 진정한 「시티」 만들 터”



연극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서울시립극단이 지난 연말에 창단되고 초대 단장겸 예술감독에 金義卿(60년 文理大卒·극단 현대극장 고문)국제극예술협회(ITI) 한국본부 회장이 선임됐다.

시립극단 단장으로서, 또한 오는 8월말부터 열리는 「제27차 ITI총회 및 97 세계공연예술축제(약칭 서울연극제)」 조직위원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金동문을 만나보았다.

『두가지 큰 일을 책임지게 되어 무척 힘들지만 한국 연극 사상 가장 큰 행사를 제대로 치러내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철학을 전공하고 연극의 외길 인생을 걸어 오셨는데.

『고교시절(사대부고)부터 연극반에서 활동을 했으며,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작가의 꿈을 안고 철학과에 지원했으나 연

극활동에 더욱 심취돼 미국 브랜다이스대에서 연극학 석사를 받고 연출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 그동안의 작품 활동은.

『64년 ITI 한국본부에 사무국장으로서 몸담아 오면서 81년 제3세계 연극제를 유치, 국내 최초로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며 그동안 「남한산성」 「북벌」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길 떠나는 가족」 등의 희곡작품을 제작했습니다』

— ITI 총회 및 서울연극제가 주는 의미는.

『8월 30일부터 10월까지 열리게 되는 이 행사는 우리 관객들이 세계 거장들의 유명 작품 등 보기 힘든 여러 지역 연극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최초·최대의 공연축제가 될 것이며 우리 연극을 세계에 홍보하는 물론 연극을 주변예술이

아닌 우리 생활속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9월 한달동안은 대학연극제, 마당극축제 등 연극공연으로 가득 차리라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금세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잔치를 펼치는 것이므로 연극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 시립극단의 첫 공연은.

『우선 단원을 2월말쯤 오디션을 통해 뽑고 모자라는 인원은 객원배우를 출연시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첫 공연은 작품을 결정한 후 6월말이나 7월초에 가질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작품들은 좀 더 정성을 들이고 예산을 충분히 투입, 완벽하게 만든 후 여러 차례 공연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각오는.

『극장이 없는 도시는 「타운」이고 극장이 있는 도시는 「시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연극문화에 대한 배려가 낮은 감도 있고 다른 8개 시립단체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이제 막 태동하는 전국 도립, 시립극단의 모범이 되고 모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우리 사회가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문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확신을 갖고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變)



맹인 돕기 운동 30년

변호사겸 의사...무료 변론·진료 병행

田溶星변호사



30여년간 사회사업을 펼치면서 1백여 명의 맹인들에게 시력을 되찾아준 田溶星동문은 50년 모교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65년에는 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때문에 田동문에게는 변호사, 의사 등 전혀 함께 설 수 없을 것같은 직함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다.

「醫와 法은 통할 수 있다」는 신조로 불우한 이웃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田동문을 만나보았다.

—맹인들을 돕게 되신 계기는?

「일제시대 때는 한국사람에 대한 차별이 무척 심했습니다. 출세의 길이 막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저는 그나마 유복한 가정, 교육을 중시하던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한 덕분에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때 불쌍한 동포를 돕기 위해서는 의사와 변호사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와 변호사가 되면 무료로 수술도 해주고 동포들의 인권도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을테니까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 진료와 무료 법률상담 또는 변론을 꾸준히 해오다가 65년 서울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때 서울 라이온스 맹인 재단에 3천여만원의 기금을 출연하면서

맹인 돕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지요. 전국맹인협회의 소개를 받아 모교병원 안과를 통해 수술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은.

「전국 40만 맹인 가운데 20만명 정도는 수술만으로도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이 가능한지 검사하는 것에서부터 퇴원까지 1인당 2백여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검사비와 개안 수술비를 사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백여명의 맹인이 광명을 찾았는데 맹인중에 40여명은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 장학금을 전해 주기도 하지요」

「그 외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회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해년에 창립한 辛亥會는 돼지가 복이 많고 성실하고 내실이 충만하므로 이에 맞게 불우한 사람을 돕고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친목모임입니다. 회장을 맡아보면서 고아들을 돕기도 하고 지난 95년에는 중국 연변 의과대학을 마치고 연세대학에서 의료수습중인 한동환군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힘 닿는대로 돕고 살고 있습니다」

—참여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한 방법은.

「우선 사무실로 전화(923-9388)를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안수술 의뢰의 경우는 전화하시면 서울라이온스측에서 모교병원에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검사, 수술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志)

추억의窓

金宇鍾(58년 文理大卒) 한국대학신문주필



동송동에 있던 문리대 캠퍼스 교문 앞에서 어린 딸과 함께.

1950년 5월, 서울대학교 문리대 교정은 싱그러운 마로니에 나무 그늘 아래 라일락 향기마저 가득차 있어서 새 배지에 새 교복을 입은 신입생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했었다.

그런데 개학을 했어도 한달동안 교수들은 거의 콧배기도 볼 수 없었다. 한두번 강의는 있었지만 그것은 1학년 전체 집단강의여서 우리 국문과 새내기 녀석들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다. 그리고 곧 전쟁으로 흩어져버린 것이다.

대학입학이 지금의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때 역시 세칭 일류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입학

등록금 낼 돈은 커녕 그날 먹고 하룻밤 잘 집도 없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힐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5년전의 국문과 입학생임을 입증할 자료가 학교 당국이나 나나 단 한 가지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것이다. 학교에서 내놓은 것은 피난 갈때 허겁지겁 가지고 내려갔었다는 입학자 명단 단 한장. 그런데 거기에 그냥 비슷한 「김우진」은 있지만 「김우중」이 없었다. 생년월일도 주소도 안 적힌 것. 그러므로 결국 「김우중」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아무라도 좋으니 국문과의 증인을 불러와 주시오」

입학자 명단서 증발해버린 「김우중」

증인 못구해...교수회의서 복학 결정

식날도 보지 못한 국문과 교수님들은 마지막 흩어지던 날까지도 한사람도 못보고 말았다. 그렇게 흩어진 후 만 5년이 지나서 복학하겠다고 옛 교정에 찾아와보니 감개무량한 커녕 그동안에 쌓였던 울분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듯 했다.

군복무 4년 2개월, 그중에서 1년 2개월은 북쪽 포로수용소, 그 후 용감하게 탈출 남하한 후에는 꽃다발 대신 남쪽 포로수용소, 그리고 강등되고 원대복귀하고... 그러다가 옛 교정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내 군화는 다 떨어져서 꿰매신을 수도 없었고 웃은 볼들인 군대작업복, 그리고 복학을 한다 해도 사실은

내가 울화가 터져 버린 것은 이때다. 5년전 입학생중에 나를 봤다고 입증해 줄 국문과 학생이 어디 있고 교수가 어디 있던 말인가?

그로부터 한달쯤 뒤에 교수회의를 거쳐서 복학이 허용되었지만 그래도 또 걸음이 무거웠다. 밥 한끼 사먹을 돈도 없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구하나? 산너머 산이었다. 그래도 결국 졸업은 했고 3학년 말에는 문학평론가로 등단해서 교내에서는 좀 알아주는 학생이 되기 시작하니 그때야 쌓였던 울분이 좀 가라앉기 시작했다. 5년 지각생이 되었지만 내가 애초에 소망했던 문학에의 길에서는 오히려 뜻밖에 좀 빨랐던 셈이다.

한국 초음파 진단기 생산의 대명사

기술 투자와 서비스로 미래에 도전

“2천년엔 세계 5위 전자의료기기회사로 부상할 터”

지난 1월호를 끝으로 동문이 단체장으로 재직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 탐방을 마친다. 이번 호부터는 「경제를 살리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성공사례를 발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경제, 과학분야 특히 제조, 서비스, 유통업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동문 기업을 탐방, 게재한다.

메 디 칼
(Medical)과 소
닉스(Sonics)의
합성어로서 의
료초음파 분야
를 선도하는
기업 이미지를
담고 있는 (주) 메디슨은



李珉和사장

85년 7월 2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젊은 공학도들이 자체 개발한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상품화하면서 설립, 의료용 영상진단기를 전문 생산하는 전자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회사이다.

李珉和(76년工大卒·벤처기업협회장) 사장은 KAIST에서 초음파 진단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책 연구개발 과제로서 국내 최초로 개발한 초음파 진단기를 국내에서 아무도 사업화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동료 공학도 6명과 함께 자본금 5천만원으로 메디슨을 설립했다.

KAIST공학도 뜻모아 설립

메디슨은 소노에이스-4000, 88 등의 신제품 개발을 계속해 90년 매출액 73억원, 91년 1백36억원, 92년 2백26억원, 95년 5백67억원, 96년에는 국내 경제의 어려움속에서도 8백억원 매출 목표대비 7백94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 99%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메디슨이 세계적인 초음파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① (주)메디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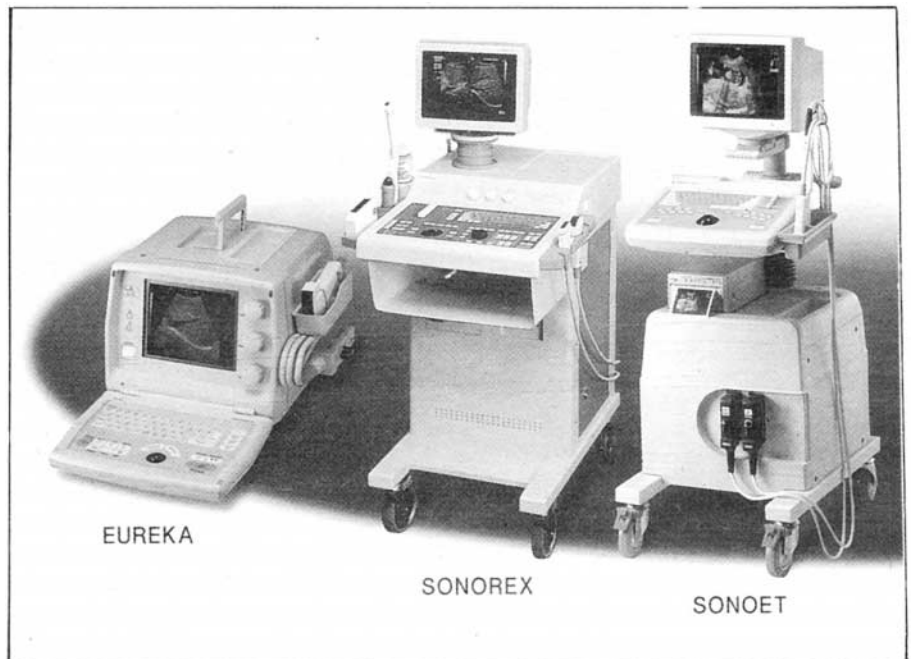
기술개발이다. 메디슨은 총 매출액의 20%를 연구개발 비용으로 재투자하면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구소에 서는 적어도 1년에 2번이상 신제품을 발표하는 왕성한 연구업적을 자랑하고 있다.

“서비스는 최상의 투자”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영업전략이나 고객지원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최상의 투자입니다』

李珉和사장은 판매한 의료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철저하다.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기를 고치는 동안 대응할 수 있는 기기를 제공, 불편을 최대한 덜어 준다.

메디슨은 국내시장에서 주요 경쟁사였던 Aloka, Toshiba, Hitachi와 차별화된 정책을 펴고자 가능한한 경쟁사보다 30%이상 낮은 가격, 철저한 애프터서비스, 초음파 전문잡지 「소노에이스」의 보급, 방문 임상교육 등으로 한국산 초음파 진단기가 전무했던 한국시장을 개척하면서 한국 초음파 진단기의 대명사가



됐다.

이는 제조업체만이 가질 수 있는 고객서비스로서 메디슨의 등장으로 국내 초음파 진단기 소비자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동안 판매에만 주력해온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제1회「벤처기업대상」받아

해외시장에 있어서는 87년 초음파 진단기(SA-3000A)를 터키에 첫 수출한 이래 파키스탄, 이탈리아, 홍콩, 인도 등에 「MADE IN KOREA」의 상표를 붙이고 상륙시키기 시작했으며 미국, 독일, 러시아,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세계 56개국에 60여개의 대리점을 운영, 세계시장에서 초음파 영상진단기 제조업체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 결과 91년 「제1회 벤처기업 대상」, 「5백만불 수출의 탑」, 92년 「1천만불 수출의 탑」, 「철갑산업훈장」, 95년 「전자공업인 대상」 및 「생산성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초음파 진단기 전문업체로 시작한 메디슨은 내과전용 SONOREX, 산부인과전용 SONOET, Personal 초음파 EUREKA에 이어 첨단 의료기술의 결정체인 칼라 초음파 TRIDENT를 개발, 본격적으로 과별 전문 초음파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의료기 세계시장 20% 점유

설계기술 및 핵심부품의 100% 국산화를 실현한 메디슨은 국내 초음파 진단기 시장의 약 70%, 세계시장의 20%이상을 점유, 기술에 의한 세계도전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추진중인 적외선 촬영기, MRI 등의 영상진단기 부문과 함께 의료정보, 생화학 분석기,

인공장기 부문의 국내 20여개 투자회사와의 협조를 극대화하여 2천년엔 세계 5위의 종합 전자의료기기회사로 부상할 계획이다.

보다 다양한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국내에 2개의 자회사(메리디안, 메디다스)와 10개의 합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메디슨은 앞으로도 메디슨만의 도전정신과 이를 바탕으로 한 메디슨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류 건강 복지에 기여함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세계속의 종합 의료기업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노력할 것이다. (雙)

〈메디슨 동문현황〉

이흥규	75년 공대졸	연구소 상무이사
한성호	82년 사회대졸	경영정보실 기획팀 부장
조영환	85년 공대졸	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동식	86년 공대졸	생산부 생산담당 이사
배무호	86년 공대졸	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기영	86년 농대졸	연구소 선임연구원
고석빈	87년 공대졸	경영정보실 오스트리아 파견
손길준	88년 경영대졸	관리부 자금과장
공대식	88년 공대졸	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철안	88년 공대졸	연구소 선임연구원
임영순	89년 가정대졸	경영정보실 비서팀 과장
박경진	89년 경영대졸	해외영업부 해외영업팀 과장
김영훈	90년 공대졸	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종석	90년 법대졸	경영정보실 기획팀 과장
지영준	91년 공대졸	연구소 내시경팀 과장
고만석	92년 경영대졸	경영정보실 기획팀 대리
이영태	92년 공대졸	연구소 연구원
최승욱	92년 공대졸	연구소 대리
황계섭	92년 대학원졸	연구소 선임연구원
여청모	94년 경영대졸	경영정보실 S/W팀 대리
김형함	95년 대학원졸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재욱	97년 공대졸	연구소 연구원
김영준	97년 공대졸	연구소 연구원



(주)메디슨의 홍천공장 전경.

모교소식

97학년도 합격자 발표

인문수석 鄭鎔植·자연수석 徐峻豪
쌍둥이 4쌍 나란히 합격 「기쁨 두배」



합격을 확인한 후 친구들과 기쁨을 함께 했다.

지난 20일 97학년도 대학입시 합격자 4천9백20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총 1만6천1백33명이 지원, 3.28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입시에서 합격자중 재수생이 1천1백83명으로 전체 24%를 차지해 지난해의 29.6%보다 5.6%

포인트 줄어든 반면 여학생은 1천3백24명(27%)으로 지난해에 비해 2%포인트 늘어났다.

수능성적 3백20점 이상 지원자 3천1백38명 중 11.7%인 3백68명(인문사회계 2백34명, 자연계 1백34명)이 탈락해 수능총점보다 수능영역별 가중치, 학생

부성적, 논술, 면접고사 등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격자중 자연계열 수석은 자연과학대학에 지원한 徐峻豪(제주 대기고)군이, 인문·사회계열 수석은 법과대학에 지원한 鄭鎔植(창원 중앙고)군이 각각 차지했으며 부산 해광고를 나와 86년 고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 사원과 오퍼상을 거친 37세의 崔龍星(수의과대학)씨가 최고령 합격자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번 합격자중에는 네쌍의 쌍둥이 합격자가 나와 화제가 됐다.

자연과학대학과 인문대 서어문학과에 합격한 경남 진주의 李玟英(경해여고)·惠英(삼현여고)자매 자연과학대학 의예과와 법과대학에 합격한 서울 경기고의 朴英洙·英信형제, 공과대학과 사범대학에 합격한 서울 광성고의 鄭愿爽·愿日형제는 두배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광주의 李亨哲(문성고), 京洙(광주고)형제는 공과대학과 생활과학대학에 나란히 붙었다.

신임 가정대·경영대학장 李恩英·郭秀一교수 취임

지난 1월 23일자로 가정대학장에 의류학과 李恩英교수, 경영대학장에 경영학과 郭秀一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가정대李학장은 70년 사범대 가정교육과를 졸업하고 73년 미국 텍사스 Tech대에서 의류학 석사학위, 77년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가정대 조교수로 부임하여 가정대 학생학장보, 교무학장보, 의류학과장, 교과과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경영대 郭학장은 63년 상대를 졸업하고 65년 美컬럼비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74년 美워싱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66년 모교에 부임한 이래 경영대학 학생학장보, 교무학장보, 경영학과장, 발전기금 상임



李恩英교수



郭秀一교수

이사를 지냈으며 한국경영과학회장, 생산관리학회장, 중소기업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98년 신입생 10% 특별전형

고교 1명씩 교장 추천받아

모교는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정원의 10%인 4백여명을 고등학교의 추천을 통해 뽑기로 했다.

또한 수학, 과학, 영어 등 특정분야의 우수학생을 별도 선발하는 등 다양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로 했다.

鮮于仲皓총장은 『전국 1천8백여 고교중 모교에 단 한명의 신입생도 보내지 못하는 학교가 1천2백여개에 이른다』고 말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낙후지역 학생들도 모교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8학년도 입시부터 과학·수학 올림피아드 입상

자, 컴퓨터·어학 우수자, 농어촌 거주 우수학생 등 전국 각 고교 교장이 1명씩 추천한 학생 중에서 뽑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대학

「임상연구동」 착공

치과대학(학장 金光男)은 올해 초에 숙원사업의 하나로 서울대병원, 치과병원 옆 부지에 치의학 임상연구동을 착공한다.

총 2천평 규모의 임상연구동 설립으로 교수들의 연구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치의학 발전은 물론 양질의 환자진료에도 전념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變)



徐峻豪



鄭鎔植



朴英洙



朴英信



鄭愿爽



鄭愿日



李亨哲



李京洙



1월호를 읽고

동문 유대·모교 발전 2대 명제 답아야



동창회보는 동문의 결속과 모교의 발전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동문과 모교를 이어주는 유대강화와 관련된 기사게재와 예비동문(후배)의 참여가 뒷받침되는 기사발굴이 이뤄졌으면 한다.

더불어 무거운 소재보다 옛 은사와 동문의 동정 그리고 모교와 동문의 훈훈한 미담을 알리는 소프트 기사가 덧붙여지기를 기대한다.

동창회가 너무 거대조직으로 도약하다보니 단과대 동문이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전체 동창회와 단과대 동창회가 융화되는 모임체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 鄭鍊沁(58년 藥大卒)화일약국 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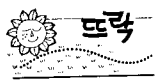
위인들의 명언을 소개해주었으면...



신년 벽두에 우리 대표와 모교 총장의 포부가 게재됨으로써 동창회와 모교 발전의 미래를 추리해보는데 도움이 됐다.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회보 지면의 적절한 위치에 우리나라 선열을 비롯한 위인들의 「名句」란을 만들어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다.

가급적 명언을 남긴 위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찾아준 동문을 소개해준다면 점차 호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보를 통해 공고하고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면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黃斗英(69년 行大院卒)한국새마을금고학회 회장



“전통 음식을 세계로”

魯眞和(56년 家政大卒)세계요리학회 회장

당시 필자가 가정교육과를 졸업할때 요리연구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남편을 만나 4학년때 결혼을 했으니 말이다. (당시는 여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대부분 현모양처였다) 당시 모교 강사이셨던 시아버님은 유난히 손님 초대를 좋아하셨고 가정교육과를 졸업한 필자는 손님 초대요리를 하느라 바빴다.

남편 사업 실패로 요리 배우

이윽고 요리학원을 섭렵하며 다녔고 유명 음식점을 찾아 먹어보고 적어와서 흉내내며 해보기를 계속했다. 그에 맞춰 가족, 친지, 손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거기에 힘입어 신나게 요리를 했었다.

그러던중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요리학원 강사를 하면서 퇴근하면 호텔 주방장을 찾아가 요리를 배웠다. 무엇이든 꾸준히

전문가에게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서었다.

그렇게 해서 늦게 출발했지만 빨리 요리계에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한국 전통의 맛을 지키고 연구하기 위해 전통음식을 배우고 있다. 요리란 하면 할수록 심오한 맛이 나고 무궁무진한 것 같아 조금의 후회도 없다. 요즘은 세계요리학회회장으로서 전통음식을 세계에 알리고자 힘쓰고 있다.

지난 95년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국 참전 26주년 기념비 개막식 행사에 참여해 전통음식 전시회를 가졌었다. 시식회도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호평과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충분한 가능성과 함께 자부심을 느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김치와 관련이 있다. 가까운 일본의 기르치의 세계화를 보고 이전 김치의 종주국이 일본이라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엄연히 김치는 한국이 종주국이고 맛이나 종류에서



도 기르치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지난 95년 김치와 기르치의 비교 박람회에서 입증되었다. 애틀란타올림픽 선수촌에도 우리나라 김치가 선택되었음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일이다.

일본을 김치 종주국인줄 알아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음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세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것도 많다. 60이 넘는 나이지만 지금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요리강의를 좋아하는 것을 볼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선택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 같다.

사랑의 병동 24시

朴仁淑(81년 看護大卒)서울대병원 간호사



한해의 마감과 한해의 시작에 서서 생각해 본다.

「올해의 간호사」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는 병원내외의 동료, 상사, 환자, 보호자들로부터 축하인사를 받으며 과연 나 자신에게 축하를 해줄 수 있는지를 ...

그리고 지난 15년간 내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 또한 알게 모르게 내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상처를 주기도 했던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 동료 직원들을 떠올려 본다.

혼자 밤근무를 하는 중에 암으로 투병중인 50대 중반의 여자환자가 손을 잡아달라고 하며 아무말 없이 5분이고 10분이고 마냥 잡은 손을 놓지 않았던 일,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전이되어 말기의 심한 통증 때문에 진통제로 매일의 삶을 견디던 한 건축가의 저물어가던 삶, 심장수술 후에도 뇌성마

비 환아가 정을 떼지 못해 병원으로 집으로 수없이 전화를 하던 일, 이 사회의 어두운 면에 있는 사람들중 행려 할머니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15년 만에 「올해의 간호사」 뽑혀

대퇴골 골절로 입원, 수술을 하려면 속바지를 벗고 해야 하는데 절대 남 앞에서 속바지를 벗지 않겠다고 했던 할머니, 머리카락이 까만색이어서 젊은 할머니로 생각하고 머리를 감기고 보니 백발의 노할머니였던 일, 유방암 말기 이면서 그 암을 미끼로 영별이를 해왔던 할머니, 치매로 집을 잃고 몇번이나 응급실로 실려왔던 할머니 등등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최근에는 삼중백화점 사고로 골반골절로 입원하여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으로 고생을 하다가 현재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간간히 전화로 소식을 알려오는 여자 환자가 떠오른다.

하지 골절로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60대 초반의 할머니께 퇴원시 휠체어보다 목발을 이용해 걸어 나가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 몹시 서운함을 표현하셔서 죄송스러웠던 일은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암환자 돌보며 다져진 사명감

일반 병동 문안에 들어서면 계속 울려대는 전화벨소리, 다급한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 직원들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과연 그들에게 나는 간호전문인으로서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또 앞으로도 필요한 존재일지에 대해 자문해 본다.

모임

探訪

구법산악회



북한산 산행을 마치고.

「九法山岳會」는 법대 9회 동기들의 등산모임으로 매월 넷째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산을 찾는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총동창회 주최 등산대회도 정기산행을 겸해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데 지난해에는 李秉熙법대동창회장의 선창으로 회원 모두 나와 호기어린 합창을 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孫一根회장은 3년이 넘게 장기집권(?)하고 있는데 특별히 회칙을 만들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회장을 맡은 이후 산행 때 한번도 비가 온 적이 없어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吉日을 잡을 때는 孫 회장을 찾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회원 40명 모두 아호로 호형호제

회원들이 산행을 고집해온 이유는 등산이 저비용, 고효율의 심신 단련운동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孫회장이 자주 인용하는 「산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꼭대기에 神을 모시며, 답답하면 솟아서 높은 봉우리가 되고 소리가 그리워지면 내려와서 깊은 계곡이 된다」는 金瑛燮의 詩句처럼 「산의 餘裕와 豪氣」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산행에는 반드시 점심 도시락을 지참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식사 전에는 회장 선창으로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즐겁다! 울컸니!」를 힘차게 복창하는데 「울컸니」는 히브리어로 「아멘」의 뜻과도 통한다고 孫회장은 설명했다. 늦어도 오후 2시30분에는 하산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오후의 일과를 나름대로 유익하게 보내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관례가 됐다.

그동안 徐廷和동문이 1백만원을 출연한 것

을 비롯해 회원들의 참여로 기금을 많이 모았는데 역시 「自他半기금」의 덕을 많이 봤다고 할 수 있다. 「自他半기금」이란 지각하거나 약속을 어기면 내는 일종의 벌금으로 「자의반 타의반 기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강제성이 없어도 그냥 넘긴 회원은 없었다.

회원들은 모두 아호로 호형호제하는데 40여 명이나 되는 이들의 아호를 하나하나 외는 것이 치매예방에 좋다고 믿고 있다. 회원간의 경우도 나누고 정신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다. 몇가지 재미있는 호를 살펴보면 金昌福(동방사회장)동문의 「龜步」는 느리지만 끈기있는 그의 성품을 알 수 있게 하고 孫회

장의 호인 「白如」는 넉넉하고 여유있는 삶을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밖에 曉天 權永純 前몽골대사, 一默 徐廷和(前내무부장관)국회의원, 淸凡 李玟洙신로 개발고문, 又石 李秉熙대우저판회장, 총무를 맡고 있는 蓮塘 李淵鎭 前계성제지상무, 圃庭 李海遠한국우드워드회장, 濯亭 洪鎭泰삼산목재회장, 素夫 朴世徹양흥업회장 등 회원 모두 특색있는 호를 자랑하며 20여년의 우정을 지켜왔다.

가장 인기있는 회원은 단연 小谷 趙行淑바우통상 사장이다. 유일한 여성 회원인데다 特製 과일주를 가져와 회원들이 산에서 한잔씩 맛볼 수 있는 황홀함을 안겨준다. 가끔 숙박문제로 부득이 산행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과일주를 출발역까지 들고 나와 배웅을 해준다니 그 누가 감동하지 않겠는가.

(志)



八十 回想 一片

李春寧명예교수



지난해는 필자에게 여러 가지 느낌을 준 해였다. 우선 나이에 있어 팔순을 맞이했고 모교인 농과대학에서는 필자가 50년전에 취임, 14년전에 정년퇴임한 「농화학」과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돼 감회가 깊었다.

모교와 함께한 60년

그간에 일본에 7년 유학과 연구(해방전), 미국에서 6년반의 유학과 연구 등 외국에서의 체류가 길었고 강습회 수강수련, 경제사절단 참가 등 각각 2개월 내지 1개월의 장기여행도 있었으며 국제회의의 주재 및 참여도 빈번했다. 지금같은 때에는 해외출장이 다반사이지만 우리가 지내던 그 당시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옛부터 외지로 잘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驛馬直星(늘 부산하게 멀리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라 했다. 서울 태생이니까 수원에 있는 농대(전신)에서 3년을 지낸 것까지 더하면 한창시절에 근 17년을 객지에서 보낸 셈이다. 목적없는 방랑생활도 아니고 공부를 위한 긴 세월의 소비였다고 자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당시가 일제하였고 또 이어서 해방 후의 격동기였다는 점에서 부득이한 환경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새 유학처럼 부모 돈으로 치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력으로 이겨 나가야 했던 때였기 때문에 미국 유학생활은 특히 고생이 심했다. 이러한 긴 외지생활은 필자에게 인내심, 독립성, 체념, 겸손, 낙관 등 여러 가지 교훈을 안겨 주었다. 그리고 세상사에는 때

로 모험이 필요(무모한 모험은 안되지만)하며 안일과 무사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해주었다.

세상사에는 모험 필요

타고 나기를 몸이 허약하고 성격이 소극적이며 진취성이 없던 필자는 길고 어렵던 객지생활을 뚫고 나가는동안 강단도 세지고 성격의 변화도 많이 생겼다. 20회에 가까운 해외여행(국제회의, 학술회의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일본과 미국에서의 장기체류에서 얻은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황혼기에 들어선 필자로서는 관광단에 끼어 근거리의 외국여행이나 간혹 나가는 정도로 지내지만 과거에 단신으로 여러 나라를 방문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지난 84년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한 모로코와 동유럽의 불가리아의 여행은 정말로 모험에 가까운 것으로 지금도 회상하면 오싹할 때가 있다.

문화
단신

新刊

■ 韓國의 棍과 劍

— 金大慶 著



검도 7단, 곤도 9단의 金大慶(53년 獸醫大卒·대한곤도협회장)동문이 전통무도의 올바른 전수를 위해 고유 곤법과 검법의 기본 자세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담은 교본을 발간했다. <河圖洛書刊> 값15,000원

■ 저 구름 흘러가는 곳

— 金錫營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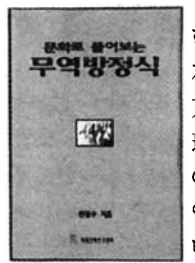


수필집, 명상록, 칼럼집, 세계여행 안내서 등을 집필해온 金錫營(55년 法大卒·태양종합상사 회장)동문이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1백여편의 시들을 모아 첫번째 시집을 펴냈다. <진명문화사刊> 값6,000원

■ 문화로 풀어보는

무역방정식

— 全京秀 著



모교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全京秀(71년 文理大卒)동문이 「월간무역」에 게재했던 「세계의 商관습」이라는 칼럼을 모아, 부인 李京禧(71년 美大卒·한국미

협회원)동문의 삽화를 함께 담아 단행본을 펴냈다. <미래인력연구센터刊> 값6,500원

■ 다도철화

— 鄭英善 著



한국다문화연구소장인 鄭英善(73년 家政大卒)동문이 선조들의 차에 관한 글들을 소개해 다도의 철학적 바탕을 인식하고 전통 茶문화의 계승은 물론 재창조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너럭바위刊> 값7,800원

■ 지금은 슬퍼할 때

— 柳子孝 著



최근 시조집 「내 영혼은」으로 제9회 현대시조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柳子孝(75년 師大卒·SBS해설위원)동문이 유년시절의 따뜻한 기억과 지난 세월에 대한 추억 등을 담은 80여편의 시를 모아 다섯번째 시집을 펴냈다. <시와 시학사刊> 값4,000원

■ 딱 한번만 더 보고싶다

— 李那美 著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李那美(85년 醫大卒)동문이 수많은 고민과 갈등속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현명하고 따뜻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고려원刊> 값7,500원 (雙)



사시합격한 최초 女치과의사

全賢姬동문

“의료분쟁 앞장서 해결하겠다”

『주부라고 해서 공부나 자기 일을 포기하지 말고 당연한 권리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생활하기 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까?』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全賢姬(90년 齒大卒)동문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격려해준 남편에게 특히 감사한다고 말했다.

3년 걸려 1, 2차 통과

딸아이를 둔 30대 가정주부이기도 한 全동문은 대학 졸업 후, 2년여 동안은 평범한 치과의사로 활동했다. 그러나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다』는 욕구와 무엇보다 『선진국처럼 의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법조계에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용기를 내서 사법고시에 도전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 경험은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쌓은 뒤 법조계에 입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히려 전공 공부도 뒤로 하고 사시에만



매달리는 세태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문의사로서 3년의 짧은 기간동안 1, 2차 시험에 합격한 全동문의 패기는 더욱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편·동생도 법조인

대학 1학년때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 金憲範(89년 法大卒)동문과 동생 全相根(88년 法大卒)동문도 지난 94년과 95년 각각 사시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에 몸담고 있다. 이들 외에도 全동문의 가족중에 모교 출신이 많아 법조인 가족이자 서울대 가족이어서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합격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다. 『편한 길을 놔두고 왜 사서 고생이냐』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과 딸을 친정과 시댁에 맡겨가며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더구나 남편이 사시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수입도 전혀 없어 병원에 파트타임으로 나가거나 과외교습을 해가며 생활비를 보태야 했다.

「사서 고생이냐」 놀림도

그러나 全동문은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돈보다는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의료전문성을 발휘해 의료 관련 분쟁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志)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96년 12월 16일~97년 1월 19일 • 一般:96년 12월 16일~97년 1월 6일〉

회 장 단

- ▲부회장 金基炳= 1백만원
- ▲부회장 金貞植= 1백만원
- ▲부회장 徐廷和= 50만원
- ▲부회장 申榮均= 1백만원
- ▲부회장 李聖秀= 50만원
- ▲부회장 鄭夢準= 1백만원
- ▲부회장 許鎮奎= 1백만원

관 악 회

- ▲이 사 尹美子= 30만원
- ▲이 사 洪性大= 30만원

상임이사

- ▲鄭哲圭 공과대학동창회장= 20만원
- ▲崔永喆 문리과대학동창회장= 20만원
- ▲李奭熙 법과대학동창회장= 20만원
- ▲李光魯 대학원동창회장= 20만원
- ▲朴重培 행정대학원동창회장= 20만원
- ▲朴寬用 국가정책과정동창회장= 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 ▲최갑수76서울대교수

◇社會科學大學

- ▲이규진76중앙일보사장실

- ▲정용준80인천시보건사회국

◇家政大學

- ▲강대은88삼선교약국
- ▲최규련74수원대교수
- ▲최정신71성심여대교수

◇看護大學

- ▲이정자65보훈병원간호부장
- ▲정문희73한양대교수

◇經營大學

- ▲이호선79단국대교수

◇工科大學

- ▲구유희62연금사(주)사장
- ▲권기안57강원산업상임고문
- ▲김병찬47성균관대 명예교수
- ▲김성곤77동아대교수
- ▲김연식61(주)한국로드고문
- ▲김영휘60고려대교수
- ▲김유희61前동산C.N.G.전무
- ▲김윤상70양진무역대표이사
- ▲김정우61우미자원기술대표
- ▲김중렬71자원연구소실장
- ▲김천욱69연세대교수
- ▲문상홍68서울대교수
- ▲민병재57세신기업대표이사
- ▲박석탁60(주)원진전자회장
- ▲박성양66미래섬유정보회장
- ▲서영관60해장조경회장
- ▲설원길61원영기업대표
- ▲성응모65엔지니어링서비스
- ▲신중록70대양산업기획이사
- ▲심세진65대한정밀화학사장
- ▲안규영65현대화재보험

- ▲엄도재66삼성중공업전무
- ▲오창석66한국TPM컨설팅
- ▲오창수66유신설계공단
- ▲유제운61라이트모드사장
- ▲윤동실66유신설계공단
- ▲윤문섭62태경ENG회장
- ▲이경훈58(주)대우회장
- ▲이기성57前석탄산업사업단
- ▲이동진78현대건설차장
- ▲이범주64동양시멘트고문
- ▲이상각73코스코인터내셔널
- ▲이재섭59前한국신용금고
- ▲이창규61대성광업개발전무
- ▲이충수68정진인터내셔널
- ▲조기봉62진로그룹사장
- ▲조성용57(주)데이콤전무
- ▲최만형66동방전자산업사장
- ▲한숙원61한일건축사무소장
- ▲한형수64제일합섬부회장
- ▲홍성일68서울대교수
- ▲황대석65오보ENG사장

◇農科大學

- ▲고광출68서울대교수
- ▲권대욱73한보건설본부장
- ▲김성수67서울대교수
- ▲김진균76농촌진흥청지도관
- ▲유태종62건양대교수
- ▲정창현64前국회의원

◇文理科大學

- ▲고일남60경북통산대표이사
- ▲구범모66정신문화연구원
- ▲김기섭73안기부운영차장
- ▲김성배63KBS문화사업단
- ▲김용일64카톨릭대교수

- ▲박우용63신세대제약사장
- ▲박태환68고려영화대표이사
- ▲손형진55前중앙기상대장
- ▲송철원65대한교과서고문
- ▲여성국67(주)대우전무
- ▲오덕근74한이해운사장
- ▲오혁주60조세신문사회장
- ▲오희성60조달청이사관
- ▲이상준71태남실업대표이사
- ▲이영복66한국원자력연구소
- ▲이종하72KBS스포츠국
- ▲이중희65관세연구소연구부
- ▲임태순61남북회담사무국
- ▲정문모64광천실업대표이사
- ▲정순원75현대경제사회학
- ▲정조영64과학기술단체총聯
- ▲허운욱64공인회계사
- ▲홍순호61이화여대교수

◇美術大學

- ▲권순형65서울대 명예교수
- ▲조명형65단국대교수

◇法科大學

- ▲강금실79변호사
- ▲강익엽49변호사
- ▲계대교63산업은행인사부
- ▲고광석66한일은행조사업
- ▲고명윤69국회법제처예산실
- ▲금병태76변호사
- ▲금태환76변호사
- ▲김광원63국회의원
- ▲김내권50아이테스통신사장
- ▲김명중65前제일생명영업국
- ▲김문현73이화여대교수
- ▲김영상62하나은행상임감사

- ▲김영재62변호사
- ▲김용구60외환銀강남영업부
- ▲김익중65前경방상사사장
- ▲김인규77변호사
- ▲김정기66변호사
- ▲김종복74산업銀국제투자부
- ▲김주평64상업은행관리부장
- ▲김진수77부산지법판사
- ▲김창갑68경상대교수
- ▲노승두57변호사
- ▲노종상58변호사
- ▲노창호58대한지적공사
- ▲명완식58변호사
- ▲박영효60前한진감사
- ▲박해성78대법원재판연구관
- ▲석동준68대구지법형사과장
- ▲손지렬69서울고법부장판사
- ▲송인준67대구고검차장검사
- ▲신성순63중앙일보뉴미디어
- ▲신현주68세무사
- ▲안성철63(주)유니코사장
- ▲양형진64(주)삼양사부사장
- ▲여정구78변호사
- ▲오제세72청주부시장
- ▲유중년59(주)웨스콘사장
- ▲윤재기68변호사
- ▲이강남72부산고법판사
- ▲이광진66국민은행동부지역
- ▲임도빈71도창산업대표이사
- ▲장윤석72울산지청장
- ▲정 열62기술금융부사장
- ▲정규서66인천대교수
- ▲정기승67변호사
- ▲정기영55우진종합상사사장
- ▲정상조62의성의료보험조합
- ▲정영호60변호사

▲정운직(주)한샘대표이사
▲진영일(주)LG증권(주)사장
▲천정배(주)국회의원
▲최만립(주)대한마이크로전자
▲최홍건(주)통산부기획관리실
▲한일성(주)두산음료대표이사
▲함성규(주)로그로프전무이사
▲허규철(주)정림감정소장
▲홍승재(주)한국컴퓨터회장
▲황성재(주)대구지법경주지원
▲황영하(주)대한주택공사
▲황의순(주)한진해운관리팀장

◇ 師範大學

▲강순구(주)매산여고교장
▲김동균(주)내셔널프라스틱
▲김성곤(주)전주여고교장
▲김영봉(주)중앙중교장
▲김인환(주)태흥건설대표이사
▲김종록(주)국토정책연구원
▲박남기(주)前고척도서관장
▲박상규(주)마산고교장
▲박희숙(주)한국교원대학교수
▲유광렬(주)역사편찬위원회장
▲윤필희(주)당곡고교장
▲이성구(주)동남보건전문대
▲이완기(주)前도이취병크고문
▲이춘원(주)중앙교육연수원
▲이혜성(주)이화여대교수
▲전영우(주)수원대교수
▲주세환(주)前성남여고교장
▲홍정식(주)라인토털디자인

◇ 商科大學

▲강동석(주)국민리스부사장
▲구석모(주)한국경제연구원
▲권영인(주)한국바이오믹스
▲권오준(주)대우정밀공업사장
▲김용요(주)前신택은행전무
▲김윤택(주)영창인물공장사장
▲김재수(주)한국우에니전자
▲김현구(주)前유리직물사장
▲박병렬(주)신영증권부회장
▲박찬중(주)신한국당고문
▲서병인(주)부산대교수
▲설한준(주)시리화사장
▲손병두(주)동서투자자문사장
▲안창근(주)동원중기이사장

▲안혜진(주)기업은행부행장보
▲엄성도(주)신용보증기금부장
▲오상봉(주)산업연구원
▲윤귀섭(주)한국은행수원지점장
▲윤양현(주)前교보문고사장
▲이상호(주)한진건설전무
▲이용이(주)영원무역사장
▲이종완(주)한잠기계설장
▲이철순(주)前고려합섬
▲정이권(주)부일지업대표이사
▲정찬준(주)대운상운대표이사
▲조계기(주)前쌍용양회이사
▲최부완(주)한국공인회계사회
▲최홍락(주)양재경영연구소장
▲하기주(주)한인기획사장
▲한규환(주)유진기연사무
▲함기창(주)한일銀고객개발부

◇ 獸醫科大學

▲계봉구(주)동원신약대표이사
▲권순경(주)서울시보건환경연구
▲김우호(주)前천연연구소고문
▲김홍욱(주)공안당한의원

◇ 藥學大學

▲김삼영(주)영진약국
▲김영택(주)한국복지약국
▲김원석(주)두만약국
▲김태윤(주)엘커뮤니케이션
▲문병우(주)복지부신약개발과
▲송창진(주)송원약품회장
▲윤홍중(주)금강약국
▲윤효선(주)삼신교약국
▲임현정(주)삼덕약국
▲하성호(주)근지암약국
▲한병련(주)광성약국
▲홍우일(주)유한양행전무

◇ 音樂大學

▲김 석(주)경희대교수
▲백병동(주)서울대교수

◇ 醫科大學

▲구성대(주)군산시보건소장
▲김갑환(주)김외과의원장
▲김승원(주)서울대교수
▲김풍명(주)명피부과의원장
▲김행석(주)비뇨기과의원장

▲문현수(주)부천세종병원
▲문희범(주)서울중앙병원
▲박규홍(주)파주비뇨기과의원
▲박노정(주)을지병원비뇨기과
▲박영하(주)을지병원회장
▲박현수(주)이비인후과의원장
▲송만준(주)송만준의원
▲송정상(주)경희대교수
▲신동휘(주)신경외과의원장
▲안영민(주)강남병원소아과장
▲안창일(주)동수원병원소아과
▲양대현(주)강남병원일반외과
▲양정성(주)양산부인과의원장
▲양태한(주)양피부과의원장
▲오정성(주)산부인과의원장
▲왕영종(주)계동의원
▲유경상(주)대화외과의원장
▲이갑순(주)삼덕정형외과의원
▲이명익(주)단국대교수
▲이명호(주)소아과의원장
▲이희동(주)산부인과의원장
▲임남재(주)임소아과의원장
▲장윤석(주)前서울대교수
▲정종환(주)마산복음병원
▲채범석(주)서울대교수
▲최병인(주)서울대교수
▲한만희(주)대명의원
▲함의근(주)서울대교수
▲홍영진(주)국립의료원소아과
▲황정수(주)동국대교수

◇ 齒科大學

▲구창서(주)치과의원장
▲김세진(주)치과의원장
▲김양일(주)중앙치과의원장
▲김영한(주)경남치과의원장
▲노태래(주)치과의원장
▲박종만(주)박치과의원장
▲박행운(주)박치과의원장
▲양후열(주)치과의원장
▲우원희(주)우치과의원장
▲이신행(주)이치과의원장
▲이준규(주)치과의원장
▲이지화(주)치과의원장
▲임경빈(주)신라치과의원장
▲정원용(주)치과의원장
▲정하익(주)치과의원장
▲한동환(주)치과의원장

◇ 經營大學院

▲박기범(주)정금당사장
▲양승현(주)태농사장
▲이경훈(주)대우회장

◇ 保健大學院

▲김영일(주)유한화학사무
▲김학열(주)중외제약연구원

◇ 司法大學院

▲설경진(주)변호사
▲조가윤(주)대한법률구조공단

◇ 新聞大學院

▲안성균(주)중소기업청

◇ 行政大學院

▲고준영(주)영림기업공사사장
▲박용덕(주)통일원기획관리실
▲박준익(주)前롯데칠성음료
▲윤창원(주)환경부자연보존국
▲이강두(주)국회의원

◇ 環境大學院

▲홍성관(주)선경건설부사장

일 반

◇ 人文大學

▲곽명숙(주) 김대성(주)
▲김원중(주) 박미남(주)
▲백영서(주) 신동욱(주)
▲안범진(주) 오정택(주)
▲이용수(주) 이은아(주)
▲최해성(주) 홍석철(주)

◇ 社會科學大學

▲강준호(주) 광경수(주)
▲김경민(주) 김구섭(주)
▲김수오(주) 김승주(주)
▲김유환(주) 김운수(주)
▲김형기(주) 박두선(주)
▲박윤희(주) 박호성(주)
▲손영준(주) 송상우(주)
▲송수한(주) 오경석(주)
▲오공열(주) 유지열(주)

▲육심강(주) 윤순진(주)
▲이재봉(주) 이정호(주)
▲전통배(주) 정대영(주)
▲정준호(주) 최 훈(주)
▲최금락(주) 황기호(주)
▲황성현(주) 황승환(주)

◇ 自然科學大學

▲김윤재(주) 김진권(주)
▲박동완(주) 박명덕(주)
▲박성주(주) 박우진(주)
▲박윤경(주) 변희석(주)
▲신영길(주) 윤상의(주)
▲이경호(주) 이동근(주)
▲이시용(주) 이영숙(주)
▲이제중(주) 이형목(주)
▲이호성(주) 전세화(주)
▲조진창(주) 최호진(주)
▲추성열(주) 한성호(주)
▲현운정(주) 홍기표(주)
▲황윤술(주)

◇ 家政大學

▲경순호(주) 고은숙(주)
▲김미정(주) 김태현(주)
▲남궁희(주) 박성희(주)
▲심복자(주) 이소영(주)
▲이원희(주) 이해련(주)
▲정경숙(주) 한상아(주)

◇ 看護大學

▲강현숙(주) 권오겸(주)
▲송경자(주) 오은경(주)
▲유순애(주) 이영현(주)
▲이은주(주) 장내원(주)
▲최철희(주) 한영자(주)

◇ 經營大學

▲강종선(주) 김동훈(주)
▲김민수(주) 김영규(주)
▲김용건(주) 김태우(주)
▲박정석(주) 송요신(주)
▲유성식(주) 이상경(주)
▲이수철(주) 이진표(주)
▲임종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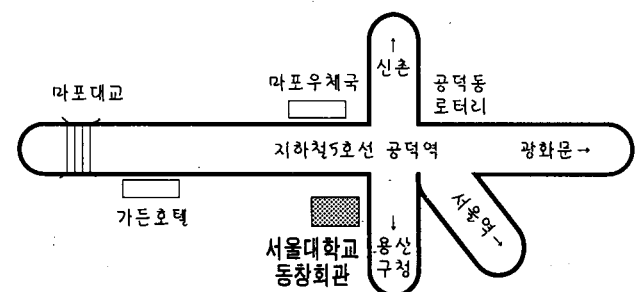
◇ 工科大學

▲강기종(주) 강남식(주)

동창회관이용안내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동문여러분이 주최하시는 세미나, 출판기념회를
비롯하여 각종 연회 그리고 동문과 동문 직계가족의
결혼식등 모든 행사를 실비만으로 훌륭히 치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하차·6번 출구 이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전화: (02)702-2233(대)
※팩스: (02)703-0755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강동균84 ▲경기호93 ▲고성석90 ▲곽문규81 ▲구창용84 ▲권혁중92 ▲김 홍88 ▲김경배72 ▲김광근78 ▲김광일60 ▲김기원79 ▲김남석60 ▲김대호72 ▲김명주86 ▲김상갑85 ▲김성중77 ▲김신우81 ▲김엽동52 ▲김영기67 ▲김용빈90 ▲김원규74 ▲김은배96 ▲김임수67 ▲김정호94 ▲김종호49 ▲김주일95 ▲김진원72 ▲김태호72 ▲김한성92 ▲김형수94 ▲남궁석56 ▲노흥규70 ▲맹두진92 ▲박경린65 ▲박근준81 ▲박기원95 ▲박민영91 ▲박상호56 ▲박성하80 ▲박승준88 ▲박영복57 ▲박이식77 ▲박정훈95 ▲박종일51 ▲박지훈95 ▲박현우57 ▲반종범96 ▲배병규55 ▲백원석95 ▲변창훈77 ▲서강일91 ▲서영웅65 ▲서주원91 ▲설영식77 ▲송계휴80 ▲송인형80 ▲신재철70 ▲신철영78 ▲신현수80 ▲안주수74 ▲양영일72 ▲양희준92 ▲염희택49 ▲오수영86 ▲옥순영90 ▲유승화72 ▲유일상57 ▲윤계섭67 ▲윤여표92 ▲이 석52 ▲이건배56 ▲이계원72

▲강석훈92 ▲고근희58 ▲고재중75 ▲구본영95 ▲권오주92 ▲기원강75 ▲김경미86 ▲김광건74 ▲김광욱67 ▲김기언86 ▲김기창63 ▲김남호89 ▲김동수96 ▲김삼선65 ▲김성만61 ▲김세환80 ▲김연배91 ▲김영규80 ▲김용기93 ▲김용철62 ▲김원태86 ▲김인석90 ▲김재환58 ▲김정환91 ▲김주영65 ▲김진구69 ▲김진철70 ▲김학성89 ▲김현준44 ▲김형우93 ▲노경윤95 ▲류세열90 ▲민승기92 ▲박경식83 ▲박기서75 ▲박동환71 ▲박상돈61 ▲박성대93 ▲박수연94 ▲박신석89 ▲박우제56 ▲박익민76 ▲박종균74 ▲박종홍78 ▲박창주57 ▲박훈신70 ▲배노천77 ▲백성현92 ▲백태룡83 ▲빈영석95 ▲서봉수56 ▲서장철93 ▲서춘덕92 ▲소진태57 ▲송석방78 ▲신동현95 ▲신종식84 ▲신항식71 ▲안성준93 ▲안학수55 ▲양점식95 ▲여인철79 ▲오세원90 ▲오영철93 ▲유광택83 ▲유연섭93 ▲유정근57 ▲유명진73 ▲유필중89 ▲이강주87 ▲이경한69 ▲이근용92

▲이도기55 ▲이명규80 ▲이민식70 ▲이병호88 ▲이상욱88 ▲이선현78 ▲이성곤91 ▲이성진86 ▲이승철93 ▲이영택84 ▲이용원67 ▲이인태57 ▲이재풍73 ▲이정호83 ▲이창희77 ▲이철형64 ▲이춘식58 ▲이현주70 ▲이호선95 ▲임성수90 ▲임채훈89 ▲장 석55 ▲장복남90 ▲장준근90 ▲장진호76 ▲장홍규58 ▲정관희65 ▲정구성82 ▲정동철92 ▲정봉현82 ▲정시현77 ▲정익진76 ▲정창훈93 ▲정화구94 ▲조남산70 ▲조병문65 ▲조원상84 ▲조재영79 ▲지철규90 ▲진병찬52 ▲차균현65 ▲최광진96 ▲최명경69 ▲최성수61 ▲최시정59 ▲최용환91 ▲최진택65 ▲하흥용84 ▲한동균91 ▲한범수93 ▲허 환67 ▲허 준90 ▲허환기91 ▲황성혁65 ▲황정태94

◇農科大學

▲강기경82 ▲강석민69 ▲강희신57 ▲공성재58 ▲김구용76 ▲김선교75 ▲김인수71 ▲김창희75 ▲박상현74 ▲박철웅95 ▲신두철74 ▲우병국80 ▲윤석복67 ▲이시철53

▲이동욱83 ▲이명호96 ▲이병록85 ▲이상석79 ▲이상윤91 ▲이성곤61 ▲이성실55 ▲이성훈89 ▲이영섭54 ▲이완영73 ▲이용재79 ▲이원배55 ▲이재우90 ▲이정하57 ▲이중무91 ▲이철우62 ▲이철룡65 ▲이해승91 ▲이현근67 ▲이흥기67 ▲임인건91 ▲임형택81 ▲장무호75 ▲장영원70 ▲장준호67 ▲장호찬94 ▲전상규92 ▲정광용64 ▲정구진95 ▲정민철90 ▲정상열80 ▲정원조77 ▲정재길60 ▲정태근93 ▲정희철93 ▲조세현93 ▲조인준94 ▲조진우96 ▲지태환67 ▲진평식64 ▲차재열91 ▲최기석91 ▲최석주55 ▲최성일74 ▲최영규66 ▲최인룡62 ▲하서용91 ▲한규현93 ▲한동철69 ▲한상민94 ▲허인국90 ▲허준호90 ▲홍기용84 ▲황순호75

▲이종선67 ▲이현우66 ▲정연택87 ▲진홍복56 ▲하철경61 ▲한찬택56

◇文理科大學

▲강신택59 ▲권혁중60 ▲김동진66 ▲김영문69 ▲김용성50 ▲김인철66 ▲김정소70 ▲김지현54 ▲김해숙70 ▲남광우50 ▲마수학72 ▲문창규72 ▲박인희55 ▲배영희53 ▲신상준60 ▲안삼환66 ▲이 환55 ▲이금세63 ▲이병한56 ▲이정복55 ▲임영률60 ▲정기정63 ▲정태철65 ▲차희원58 ▲한석태74 ▲홍창선69

◇美術大學

▲곽순화76 ▲김교식53 ▲박남희74 ▲신태철88 ▲안재후56 ▲이종학52 ▲이주을92 ▲이흥구90 ▲정경석89 ▲정용기86 ▲조용식89 ▲최동신64 ▲한옥희63

◇法科大學

▲강명훈80 ▲강찬구61 ▲구지순67 ▲길병위72 ▲김병규87 ▲김영일72 ▲김준환84 ▲류근석69 ▲박 훈83 ▲박석중58 ▲신석호61 ▲심장수74 ▲염준세62 ▲윤종혜59 ▲이규완61 ▲이영섭42 ▲이지수86 ▲임안식77 ▲정태익65 ▲조휴종57 ▲천대승56

▲이준원85 ▲정수봉65 ▲조형준88 ▲하영주87 ▲한규상47 ▲홍철선64

▲한득추59 ▲황부흥67

◇師範大學

▲강신호60 ▲고영신80 ▲김성기75 ▲김소연89 ▲김응길65 ▲김태갑58 ▲나영일80 ▲박승희55 ▲박원선64 ▲서태렬84 ▲송재희80 ▲신찬우52 ▲양태일63 ▲유공선49 ▲유재택73 ▲윤민식63 ▲이숙영63 ▲이연의49 ▲이정민78 ▲장봉의32 ▲전석우80 ▲정세진44 ▲채정립92 ▲최낙준66 ▲최종철62 ▲한성홍77 ▲한태화69

◇商科大學

▲강승구69 ▲김상은57 ▲김옥윤54 ▲박영기73 ▲박정진57 ▲서병한61 ▲심명기65 ▲오희명68 ▲유방연68 ▲이경훈60 ▲이종백73 ▲조삼국66 ▲채부영71 ▲태재렬71

◇獸醫科大學

▲김종상62 ▲박영수72 ▲신현준85 ▲윤여성81 ▲조석봉61

◇藥學大學

▲권영대59 ▲김상덕76 ▲박봉호55 ▲송인학57 ▲연제덕88 ▲윤광수73 ▲장수자59 ▲정신희71 ▲최형식76

◇音樂大學

▲김민숙76 ▲김시형96 ▲김현숙87 ▲민미란77 ▲신혜진86

▲이재민86 ▲이창희84 ▲장원석96 ▲최미란87

◇醫科大學

▲김구수77 ▲김재희81 ▲문대혁82 ▲박경덕86 ▲송익상67 ▲신철진89 ▲안상태76 ▲양세원78 ▲유언호60 ▲유현덕83 ▲이진성87 ▲장진호85 ▲전호성82 ▲조효남64 ▲최완주80 ▲홍정근81

◇齒科大學

▲강희인67 ▲김선영83 ▲김영호62 ▲김유진83 ▲김해만42 ▲박기욱56 ▲박명규57 ▲서영수73 ▲안성모74 ▲윤도철87 ▲이영훈84 ▲이춘근60 ▲정낙현50 ▲조성호68 ▲한성협76

◇大學院

▲김승호78 ▲명호철62 ▲이창환69

◇經營大學院

▲고희수75 ▲최문경74

◇教育大學院

▲조낙현77

◇保健大學院

▲김상룡82 ▲서석권68 ▲홍영상82

◇行政大學院

▲권오상62 ▲김형태65 ▲성낙합85 ▲이찬재86 ▲황도연67

◇環境大學院

▲김경윤85 ▲박종무86 ▲정우철93

◇최고경영자과정

▲고시목8 ▲권영선3

▲권태문²⁸
▲김보현²³
▲김봉제¹⁹
▲김선재²⁷
▲김성환³⁷
▲김소웅²³
▲김영동²¹
▲김정린⁹
▲김중구²⁵
▲김창곤¹⁴
▲김철환⁵
▲김치곤⁷
▲김효조²²
▲남 일¹⁴
▲남상목³²
▲노선호²⁴
▲박수열²⁹
▲박치현¹⁵
▲배창환³⁹
▲변종희¹⁷
▲서준영²⁰
▲성백진³⁶
▲송문호³⁸
▲신재성⁶
▲심명구¹²
▲안길용³⁹
▲엄대용²²
▲오병제²¹
▲오장섭²⁷
▲유건수²
▲유재열³⁵
▲유희수⁴¹
▲윤성민¹³
▲이근재¹⁷
▲이동국³³
▲이상은²⁹
▲이석범³¹
▲이영중³⁵
▲이인정³⁵
▲이종연²⁴
▲장기홍⁸
▲정길연³⁸
▲정세능¹⁴
▲정완섭²
▲정진행⁴¹
▲제종모¹⁸
▲조린상²
▲조창구⁷
▲최낙주⁷
▲최인호¹²
▲최현규¹⁴
▲하정길⁶
▲한승준²⁷
▲한종희²⁸
▲황규성³⁷

▲김범수³⁹
▲김봉규²⁰
▲김석연⁹
▲김성복²³
▲김세곤¹⁵
▲김승유¹⁹
▲김응열²⁵
▲김중기¹⁵
▲김진섭⁹
▲김창목¹⁸
▲김충세¹⁰
▲김학권²¹
▲김희언³⁷
▲남봉환⁴⁰
▲노석호³⁰
▲문봉모²⁴
▲박열래³⁵
▲배광우²⁴
▲백영기³
▲서승원³²
▲성기호²⁶
▲성환옥¹⁸
▲송운한⁴¹
▲신중규⁴
▲안광우³⁷
▲안시환²⁰
▲엄상호¹⁸
▲오세창⁴¹
▲오정근⁴⁰
▲유덕희²⁹
▲유해준⁴⁰
▲윤덕영³⁹
▲이 웅²¹
▲이길우¹⁵
▲이병문³⁵
▲이석경¹⁴
▲이성임³⁴
▲이은식²⁷
▲이정배³¹
▲이회립⁶
▲정귀래³⁹
▲정덕상³⁵
▲정영희²⁴
▲정재봉⁴⁰
▲정흥기³⁰
▲조경환¹²
▲조방래⁴⁰
▲채의승³⁸
▲최성길³⁸
▲최종환⁵
▲최화진³⁶
▲한무남¹³
▲한재열²²
▲황경노¹¹
▲황인수²⁹

▲박성득²⁰
▲백영기³⁹
▲소준열⁸
▲송봉선³⁴
▲양창식³
▲오휘영⁸
▲유길종¹²
▲이남영¹⁷
▲이상재²⁰
▲이치운³⁷
▲임춘원²⁰
▲전덕성²¹
▲정종모²⁵
▲정희천²³
▲조범순³
▲채수영²⁹
▲최창현²⁵
▲하소곤⁸
▲황의철⁵

▲박제혁²⁶
▲서찬교⁴⁰
▲손풍삼²¹
▲신재기¹⁸
▲오필기²
▲원성희⁴⁰
▲이기조²⁷
▲이병정²⁵
▲이종근¹³
▲임동섭⁹
▲장대현³⁷
▲전재구¹
▲정진영²⁷
▲조강호³⁷
▲조성진³⁰
▲최종문²²
▲탁병오³⁸
▲하정길⁷
▲황재성³⁸

◇고급금융과정

▲강태훈²
▲김명근²
▲김용현⁷
▲김홍석³
▲배관규⁷
▲손주철¹
▲송춘석⁶
▲이계용²
▲이상원³
▲이현우³
▲조상익²
▲황선권⁴
▲구경환⁵
▲김용배¹
▲김평주⁴
▲류광하⁷
▲서승원³
▲송명환³
▲엄성일³
▲이상락⁴
▲이관철³
▲조병헌⁴
▲최낙문⁶

지 부

◇한진건설

▲김동진
▲김학곤
▲조재구
▲김택환
▲조국래

◇춘천교대

▲강태완
▲김광명
▲김춘선
▲나병소
▲박준수
▲서병하
▲송환용
▲심우열
▲이길종
▲이성영
▲이완섭
▲이재봉
▲이환기
▲장성모
▲조동섭
▲권덕원
▲김정희
▲김홍수
▲박민수
▲백정자
▲성의용
▲신순임
▲원경열
▲이대형
▲이영문
▲이완희
▲이형준
▲장병기
▲전홍렬
▲한진구

◇삼부토건

▲강윤식
▲오흥태
▲조항구
▲김진영
▲이근섭
▲홍석곤

◇캐나다

▲5천달러

은행지로번호

7500875

대체구좌

010017-31-0621565

◇최고산업전략과정

▲김형우⁸
▲백길현³
▲원종국¹
▲임우근⁷
▲현승기⁵
▲박용기³
▲신용웅³
▲이종대⁶
▲정운길⁹

◇국가정책과정

▲강부자³⁷
▲김 규³⁹
▲김동찬¹⁸
▲김용성⁴¹
▲김찬희¹
▲김철주³⁰
▲김형우³⁵
▲남 철¹⁰
▲권영배⁴⁰
▲김동권¹
▲김수중⁵
▲김종웅³⁹
▲김창목¹⁷
▲김현수³⁰
▲나재암¹⁶
▲박동균⁵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개인에게 편리하고 동창회에 도움이 됩니다.



白文基(50년 美大卒)
예술원 회원



邊精一(64년 法大卒)
국회의원



金光男(65년 齒大卒)
서울대 치대학장



沈相鶴(67년 師大卒)
해외투자정보센터 사장



具聖會(69년 保大院卒)
서울보건전문대교수



劉載守(AMP 8기)
유진전력 대표이사

〈발급기간: 96년 12월 1일 ~ 12월 31일〉

개 인

◇家政大學

▲김정호⁷⁵

◇看護大學

▲김금순⁷² ▲이정자⁶⁵
▲이지숙⁷⁶

◇經營大學

▲김명찬⁹¹ ▲신동민⁸⁸
▲염창진⁸⁵ ▲이재일⁷⁷
▲전 팔⁸⁰

◇工科大學

▲강인원⁷⁹ ▲권순덕⁷¹
▲김동현⁹⁰ ▲김지상⁸⁵
▲문순주⁹¹ ▲문호지⁸⁸
▲박종태⁶⁵ ▲신형식⁷⁹
▲안치섭⁵⁸ ▲양정수⁷³
▲윤한목⁵⁹ ▲이병수⁶²
▲이용식⁷² ▲이정률⁶⁸
▲이훈구⁸⁸ ▲최석윤⁷⁶
▲최영해⁵⁸

◇農科大學

▲유철호⁷¹ ▲윤인화⁵⁹
▲최운림⁷⁷

◇文理科大學

▲박봉기⁶⁶ ▲신중성⁷⁴

▲임상원⁶² ▲정병대⁷⁵
▲정병순⁶² ▲채기원⁵⁹
▲최병헌⁶⁷

◇美術大學

▲이시용⁵⁵

◇法科大學

▲김창석⁷³ ▲박두용⁶¹
▲변정일⁶⁴ ▲신동수⁶³
▲우성만⁶⁰ ▲이영진⁷¹
▲정병무⁶² ▲최병한⁵⁷

◇師範大學

▲강복성⁷³ ▲김성대⁶⁵
▲김옥희⁶² ▲심상학⁶⁷
▲유재원⁹⁶ ▲이인규⁵⁵
▲이춘원⁶¹ ▲조현민⁷⁷
▲한미섭⁶⁵

◇商科大學

▲김광조⁶⁵ ▲김만유⁷¹
▲유창희⁷¹ ▲이종완⁶⁸
▲이화태⁶⁸ ▲장종의⁶⁴

◇獸醫科大學

▲양호석⁶⁶ ▲최윤석⁵⁶

◇藥學大學

▲박정규⁶⁴ ▲이재양⁵⁷
▲최명식⁶⁸

◇音樂大學

▲백승희⁷⁹

◇醫科大學

▲김동현⁸⁵ ▲노태영⁸¹
▲박영태⁷⁶ ▲최성배⁶¹
▲추연명⁷⁹

◇齒科大學

▲김광남⁶⁵ ▲김규문⁶³
▲김인수⁵¹ ▲배현성⁷¹
▲유태정⁷² ▲윤종구⁵⁸

◇大學院

▲신규곤⁸⁷ ▲이흥무⁸⁵

◇經營大學院

▲이상룡⁷⁵

◇保健大學院

▲구성희⁶⁹ ▲노민희⁷⁸
▲전금자⁷⁴

◇최고경영자과정

▲박영근¹⁷

◇최고산업전략과정

▲김순태¹²

◇고급금융과정

▲윤홍식⁴